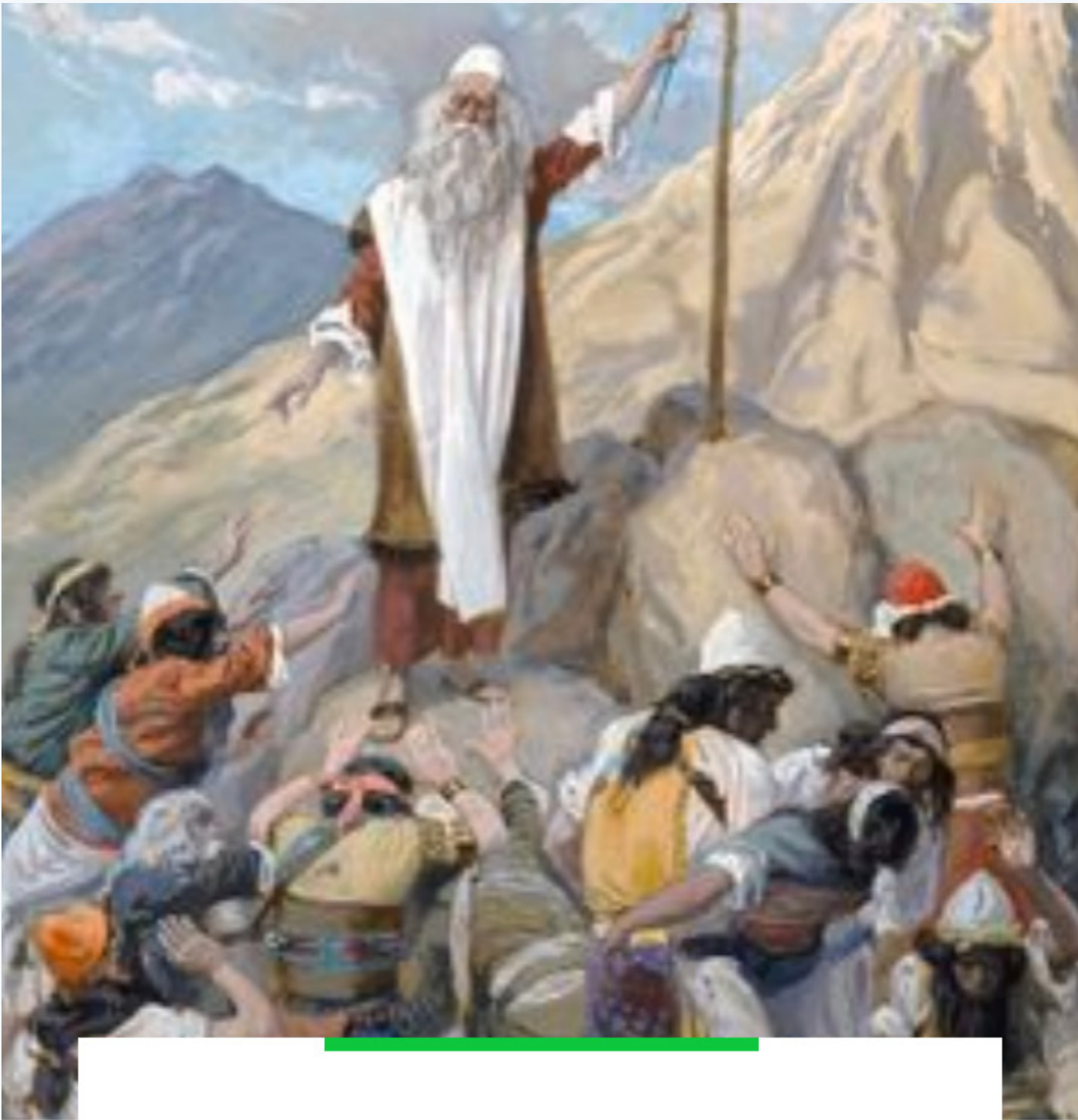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민수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민수기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민수기 1장 =====

[민 1: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이년 이월 일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 1: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 계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후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지 약 한 달 뒤라는,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이는 거룩한 예배와 임재(회막)를 통한 관계의 질서가 먼저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한 사명 수행(군사 조직)의 질서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원어 '광야' <미드바르>는 단순히 황폐하고 위험한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고독과 시련은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자력을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던 성육신의 예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 1: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철저한 순종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계수할지니"라는 명령은 단순한 인원 파악을 넘어,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어 '계수하다' <나사>는 문자 그대로 '들어 올리다', '떠 올리다'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사명에 동원하는 영적 봉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표현

이었습니다. 나아가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계수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영원한 상속)을 받을 정당한 상속자임을 확정하는 신학적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라는 기준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병역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성년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을 이제 곧 직면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Army of God)로 재조직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육적인 전쟁의 소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의 소명으로 이어지며,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구절의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헌신된 성도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은 곧 영적 성숙(이십 세 이상)을 이루어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이 헌신의 짐을 “[딤후 2:3]네가 그리스도 예수

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계수 작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였는데, 성경은 “[삼상 15:22]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명하신 바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 1:4]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민 1:5]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민 1:6]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민 1:7]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민 1:8] 잇사갈에게서는 수리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민 1:9]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민 1:10]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민 1:11]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민 1:12] 단에게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민 1:13]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민 1:14]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민 1:15]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민 1:16]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 인의 두령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육십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모두 조직해야 하는 엄청난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거대한

군사 편성 작업을 함께 감당하도록 책임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을 "두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원어인 '로쉬'<로쉬>는 문자적으로 '머리',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여 책임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도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며, 위임과 협력의 질서를 통해 그 사명을 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부름을 받은 자"<케리에 에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원어는 '회중에게서 선출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권위가 단순히 혈통이나 재산 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공동체의 영적 인정과 깊은 신뢰를 통해 정당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족장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은 도덕성과 지혜에 바

탕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의 원리는 이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제시된 바 있으며, "[출 18:21]너는 또 온 백성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재능과 함께 영적인 자질을 겸비해야만 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과 가문이 길게 나열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익명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과 책임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참된 지도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신약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영적인 자질과 함께 공동체의 인정을 중요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교회나 사회 속에서 많은 직분과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부여받은 영적 리더십의 자리임을 깨닫고, "[행 6:3]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라는 말씀처럼, 공동체의 인정과 영적인 자질이라는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사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 1:17]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민 1:18] 이월 일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민 1: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앞서 임명된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 명된 자"들과 모세(영적 권위) 및 아론(제사장적 중보)이 함께 연합하여 이 방대한 계수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수 작업이 시작된 날짜가 제이년 이월 일일이라는 점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정

하신 시간표와 질서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날짜는 성막 봉헌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예배를 통한 영적인 정화와 중심 세우기가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현실적인 사명과 군사적 조직화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백성들을 단순히 덩어리로 세지 않고 "그 가문에 대하여" 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전통에서 가문이 곧 언약의 정체성과 기업(상속)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 계수 행위가 곧 언약의 상속자들을 확정하는 법적인 절차였음을 알려줍니다. 참된 지도력은 홀로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책임을 분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감정적인 충동이나 무질서한 열심이 아닌, 시간과 질서를 갖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가족(교회)이라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방대한 행위의 궁극적인 동력

과 가치가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능력과 규모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새로운 언약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뜻과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영적인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민 1:20]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21]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육천오백 명이었더라

[민 1:22]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

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23]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구천삼백 명이었더라

[민 1:24]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25]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었더라

[민 1:26]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27]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사천육백 명이었더라

[민 1:28] 잇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29] 잇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사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1:30]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31]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칠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1:32]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33]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더라

[민 1:34]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35]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민 1:36]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37]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오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1:38]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39]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이

천칠백 명이었더라

[민 1:40]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41]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일천오백 명이었더라

[민 1:42]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민 1:43]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1:44]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십이 인이 계수한 자라

[민 1:45]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민 1:46]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더라

20절부터 4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의 계수 인원이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는

데, 이처럼 모든 지파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익명의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의 언약적 정체성과 개인의 가치를 부여하며 군사적 책임을 확정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계수 과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세밀하고 공정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와 왕권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리더십이 이미 군사 조직 속에서부터 태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기록한 지파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파의 규모 차이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생육과 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하며, 삶에 적용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열매 맺음에 힘써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이 방대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의 숫자는 수백 년간 노예로 억압받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하여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증거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방대한 숫자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교회의 영적인 규모와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공동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계수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명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 1:47]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민 1:48]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49]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민 1:50] 그들을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

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민 1:51]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민 1:52]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민 1:53]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민 1: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계수에서 레위 지파가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영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외적인 전투를 위해 계수되었다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는 내적인 거룩함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그들의 기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원어 '성막'<미쉬칸>은 '거하시는 곳'을 뜻하며, 레위인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운반하며 봉사하며 진을 치는 것"이었으며, 이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보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구별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벧전 2:9]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선포했듯이, 우리의 삶에 적용은 세속적인 가치를 기업으로 삼지 않고 예배와 봉사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은 모든 조직화와 구별의 행위가 인간의 탁월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실한 순종으로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며, "[삼상 15:22]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모든 영적인 힘과 열매는 오직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 장 =====

[민 2: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민수기 2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척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거룩한 군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절대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의 "기"<데겔>와 "기호"를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이 기는 단순한 부족의 깃발이 아니라 각 지파의 군사적 소속과 언약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익명의 난민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종족과 가문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적 소속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공동체적 질서의 근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영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바로 "회막을 향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신 점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존재 이유이자 영적, 군사적 활동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신학적 선언입니다. 원어 '회막<미쉬칸>이' 거하시는 곳'을 뜻하듯, 광야의 진영은 하나님의 내재(Immanence)를 구현하는 지상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회막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그 주변을 네 방향의 진영이 감싸는 이 구조는, 마치 천상의 질서가 이 땅에 구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완벽한 보호가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일상을 영위하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앙에 모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영적인 안정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민 2:3]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민 2:4]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사천육백 명이며

[민 2:5] 그 곁에 진 칠 자는 잇사갈 지파라 잇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민 2:6]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사천사백 명이며

[민 2:7]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민 2:8]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칠천사백 명이니

[민 2:9]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십팔만 육천사백 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행할지니라

유다 지파가 빛이 시작되는 동쪽에 배치되었으며, 광야 여정에서 가장 먼저(일착) 행진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배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는 장차 메시아가 "의의 태양"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동방에서부터 빛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

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조상 야곱으로부터 "[창 49:10]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는 왕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진영 배치는 그 예언의 권위가 군사 조직의 최전선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진영은 총 186,400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이루어, 단순히 선봉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와 공격의 책임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찬양)를 선봉에 세우셨듯이, 우리도 영적인 행군을 시작할 때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앞세워야만 승리(유다의 뜻)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 2:10]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민 2:11]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육천 오백 명이며

[민 2:12]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이요

[민 2:13]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구천
삼백 명이며

[민 2:14]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르우엘
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민 2:15]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오천
육백오십 명이니

[민 2:16] 르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
의 총계가 십오만 일천사백오십 명이라 그들은
제이대로 진행할지니라

르우벤 지파가 비록 야곱의 장자였음에도 불
구하고, 과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의 죄
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잃고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 진영인 남쪽에 배치되는 영적인 결과
를 낳았습니다. 이 진영 배치는 하나님의 공의
가 인간의 혈통적 권위나 세상적인 명분보다
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순종과 성결함을 훨씬
더 중시하신다는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
합니다. 르우벤 진영에 속했던 시므온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는데, 이
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잔인한 행위의 신학

적 결과가 세대를 넘어 공동체의 배치와 규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르우벤의 배치를 해석하며, 죄와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에 굴복한 자는 영적인 리더십과 특권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결함과 순종이 우리의 재능이나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 2:17]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기를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 구절은 행군 시 회막과 레위인의 진영이 다른 네 진영의 가장 중앙<타웁>에 위치하여 이동했다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는 핵심적인 진영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심장부에 위치해

야 하며, 레위인의 사명이 곧 이 성결함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어 '중앙' <타웁>은 '가운데' 또는 '한가운데'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혼란스러운 광야의 모든 위험과 불순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배치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성막)가 우리의 영혼과 교회의 심장부에 안전하게 거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레위인의 배치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보호받는 모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의 위험과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민 2:18]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민 2:19]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오백 명이며

[민 2:20]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이요

[민 2:21]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삼만 이천
이백 명이며

[민 2:22] 또 베나민 지파라 베나민 자손의 족장
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민 2:23]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삼만 오천
사백 명이니

[민 2:24]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
대의 총계가 십만 팔천일백 명이라 그들은 제삼
대로 진행할지니라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하고 질서
있는 행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진
영 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서방
<암>, 즉 서쪽 방향에 자리 잡은 에브라임 진영
의 위치와 규모를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
임이 무작위가 아닌 완벽한 질서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베나민 지파와 함께 서방 진영의 선두에 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중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맏형 므낫세를 제치고 진영의 깃발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창 48:19]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선언했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결실', '풍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적인 번성을 얻게 될 요셉 지파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진영의 군대 총계는 십만 팔천 일백 명으로 다른 진영에 비해 적은 수였으나, 이들은 행진 시 삼착<쉐리쉬>, 즉 세 번째 부대로서 움직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삼착'의 위치는 동쪽(유다 진영)과 남쪽(르우벤 진영)이 먼저 움직인 후, 성소(레위인)를 따라 서방이 뒤따르며 공동체의 후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

며 맡겨진 위치에서 헌신해야 함을 가르치는 영적인 모델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중 하나로 성장하여 훗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가 작더라도 궁극적으로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됨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위치(서방)와 움직임의 질서(삼척)를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나 능력(인구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브라임의 축복)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리더십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질서 있게 순종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겸손한 감사로써 영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민 2:25]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
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이요

[민 2:26]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육만 이천
칠백 명이며

[민 2:27] 그 곁에 진 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민 2:28]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사만 일천
오백 명이며

[민 2:29]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
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민 2:30]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오만 삼천
사백 명이니

[민 2:31]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
대의 총계가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라 그들
은 기를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서쪽 진영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
세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요셉
이 받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이 진영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행군했으며, 곧이어 북쪽 진영(단, 아
셀, 납달리)이 마지막 네 번째, 즉 후미(後尾)
를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사방(동, 남, 서, 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진
영은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감싸며 그분
의 백성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의 분명한 뜻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방 진영이 후미를 맡았다는 것은, 이들이 행군 중 뒤처진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보호하고 적의 기습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방어하는 가장 헌신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단 지파는 군대 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지만 후미에 배치되어 겸손한 섬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힘들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후미의 역할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가장 필수적이며 영광스러운 방어선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민 2:32]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으며

[민 2:33]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민 2: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기를 따라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최종적으로 집계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의 인원과 이 모든 방대한 진영의 배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민수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은 앞서 명령된 복잡하고 방대한 진영 배치와 행군 질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원동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그분의 거룩한 군대가 질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순종은 곧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포했던 "[삼상 15:22]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최고의 영적 봉헌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순종을 새로운 언약 관계의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성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

에 달려 있음을 이 구절은 가장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 장 =====

[민 3: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민 3: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민 3:3]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민 3: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조직화(1-2장)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이고 제사적인 직분을 맡은 아론 가문과 레위 지파의 계보를 상세히 밝히며 그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아론과 모세의 "계보"<톨레돗>가 언급되는 것은, 이 직분이 인간의 공로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언약적 계승의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에쉬 자라>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다른 불은 단순히 이상한 불을 넘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곧 불법적인 영을 담은 예배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 1-2절에 기록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하며, 예배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공동체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인간의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닌,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드러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다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예배가 내 방식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으로 드러져야만 한다는 영적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 3: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6] 레위 지파로 나아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민 3: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민 3:8]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민 3:9]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민 3:1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직을 보조할 레위 지파의 소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나 아와 서서" 제사장 아론에게 "시종하게" <쇼라트> 되었는데, 이 시종은 단순히 잡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복종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대리적이고 중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가 감당해야 할 회막 봉사의 위험과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위임과 분업이라는 질서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는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맡기라"<나탄>고 명령하시는데, 이 원어는 '주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며,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되어 제사장의 사역을 돕도록 온전히 헌납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레위인들이 외인(다른 지파 사람)의 침범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벧전 2:9]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순종적인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13]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 세 구절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신학적인 이유, 즉 "대신케 하였은즉"의 교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 (Substitution)하는 속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장자는 생명과 재산의 상속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존재였으며, 이 모든 장자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밤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 13:2]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는 명령에 따라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

하는 대신 레위인들을 온전히 택하여 속죄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장자를 대속하는 교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궁극적인 대속의 원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리스도를 "[롬 8:29]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따라 참된 처음 난 자(The True Firstborn)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본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신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 3: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15]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민 3:1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민 3:17]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계

르손과 고탓과 므라리요

[민 3:18]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민 3:19] 고탓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민 3:20]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민 3:21] 게르손에게서는 립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민 3:22]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효 곧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합계가 칠천오백 명이며

[민 3:23]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민 3:24]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민 3:25]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민 3: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민 3:27] 고탓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웃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

들이 곧 고탓 가족들이라

[민 3:28] 계수함을 입은 일 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효가 팔천육백 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민 3:29] 고탓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민 3:30]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탓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민 3:31]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민 3: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민 3:33]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민 3:34]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총계가 육천이백 명이며

[민 3:35]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민 3:36] 므라리 자손의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민 3:37]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도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군사 계수가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레위인의 계수는 "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레위인의 사명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룩한 봉사의 직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어 '계수하다' <파카드>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방문하다', '돌보다', '감독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돌보고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레위인들은 족보를 따라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가문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덮개와 포장, 휘장 같은 영광의 외적인 부분을 맡았고,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널판, 띠, 기둥, 말뚝 같은 구조적인 기초를 담당했으며, 고핫 자손은 언약궤, 분향단, 떡상 등 지성소와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다양성은 신약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예표합니다. "[고전 12:4]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5]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는 말씀처럼, 어떤 봉사는 눈에 잘 띄는 영광의 휘장(게르손)을 다루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는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튼튼한 말뚝(므라리)을 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핫 자손이 언약궤와 같은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다루는 사역이 얼마나 개인의 능력과 힘을 필요로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험한 사명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필수적인 일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 3:38]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민 3:39]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가 이만 이천 명이었더라

[민 3:4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민 3:41]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민 3:4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 하니

[민 3:43]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이었더라

[민 3: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45]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민 3:49]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민 3:50]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일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민 3:51] 이 속전을 여호와와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레위인의 계수와 그 역할 분담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자를 대속하는 실제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총수는 22,273명이었으나, 레위인의 총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수로 다 대속하지 못하고 남은 273명의 장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속전(贖錢)을 내게 하

셨습니다. 즉, "[민 3:47]사람마다 오 세겔씩" 속전을 취하여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에서 이 속전은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원리를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어 '속전'<페디온>은 '구출', '속량'을 의미하며, 이는 장자들이 물리적으로 사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속전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속량이라는 영적 원리를 평생 기억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그 "속한 돈"인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평생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구속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1절의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하였더라"는 기록은 민수기 3장의 모든 복잡한 명령들이 결국 지도자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임을 확증합니다.

초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

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
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
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
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
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
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
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
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
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
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
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
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

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레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

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민수기 4 장 =====

[민 4:1]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4: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탃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민 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
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4장의 시작은 레위 지파 세 아들 중에서
도 가장 거룩한 직무를 맡은 고탃 자손에 대한
세밀한 계수 명령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거룩한 사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성소의 핵심을 다
루는 자들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
었습니다. 원어 '총계할지니' <나사>는 '들어 올리
다',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단순
한 인원 파악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봉사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민 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라는 복무 연령의 제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삼십 세는 책임과 성숙을 완전히 인정받는 나이였으며, 대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는 연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를 다루는 고핫 자손의 임무가 경험, 지혜, 그리고 영적인 인격이 충분히 무르익은 성숙한 사역자에게만 허락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원어 '역사' <차바>는 '군사적 복무', '조직적인 봉사'를 뜻하며, 이는 회막의 일이 흐트러짐 없는 군대와 같은 엄격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룩한 전투임을 보여 줍니다.

이 삼십 세라는 복무 시작 연령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습니다. "[눅 3:23]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벽한 성숙의 연령인 서른 살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고핫 자손이 다루어야 했던 성소의 모든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수행하셨음을 예표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규정을 해석하며, 교회 내의 직분은

유희나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말씀과 인격이 훈련된 영적인 성숙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를 탐하기 전에 삼십 세의 영적인 성숙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며,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룩한 역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4:4] 고향 자손의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민 4: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민 4:6]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민 4:7]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민 4:8]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후에 그 채를 꿰고

[민 4:9]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뿔 그릇들과 그 쓰는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민 4:10]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메는 틀위에 두고

[민 4:11]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민 4:12]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메는 틀 위에 두고

[민 4:13]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민 4:14]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민 4:1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이 긴 단락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코데쉬 코다شم>을 다루는 고핫 자손의 직무를 극도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

명한 뜻은 성소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와 부주의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모든 임의적인 행동이 엄격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지성물'<코데쉬 코다شم>은 '거룩함 중의 거룩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모든 기구의 초월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지성물을 운반하는 절차는 아론과 그 아들들(제사장)의 중재 없이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고탓 자손이 멜 짐을 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민 4:5]간 막는 장을 걸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 다중의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청색, 홍색, 자색 등의 상징적인 보자기를 덮는 행위는 성소의 모든 기구가 하늘(청색), 속죄(홍색), 그리고 왕권(자색)의 의미로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어 '덮고'<카샤>는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행위는 죄인인 인간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대속적 중재의 필요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성물을 덮는 복잡한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율법과 회장에 의해 가려져 있었음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은 "[마 27:51]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덮개를 걷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덮개의 절차를 통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중보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엄중한 경고는 "[민 4:15]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였습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 자체가 아닌, 채를 꺾어 멜 수 있었는데, 이 채 <바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통제된 경로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경고를 어긴 웃사의 죽음(삼하 6:7) 사건은 인간의 선한 의도나 인간적인 편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훼손했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역사적으로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적인 열심이나 자의적인

방법(성물을 만지는 행위)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중보(덮개)와 하나님의 명령(채)이라는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만 거룩한 짐(복음의 증거)을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민 4: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맡은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고핫 자손이 운반 임무를 맡은 반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공급과 감독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맡은 것은 등유, 관유<쉐멘 마쉬하>, 향, 상번제와 같은 회막의 예배가 단 하루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소모품들이었습니다. 원어 '관유'<쉐멘 마쉬하>는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을 의미하며, 이는 제사장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관유)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예배의 지속적인 불(등유와 향)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엘르아살의 이 감독 임무를 성령의 은혜(기름)와 기도의 향(향)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야 할 신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사역이나 행정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 4:17]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4:18]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민 4:19]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멜 것을 지휘할지니라

[민 4:20]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이 구절들은 성소 봉사의 영광 이면에 감추어진 가장 엄중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하나

님의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 4:18]고핫 족속의 지파로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카라트> 말지니"라고 명령하셨는데, 원어 '끊어지게 말지니'<카라트>는 '언약을 파기하다', '멸절시키다'는 뜻으로, 이는 고핫 자손이 언약의 질서를 어길 경우 집단적인 죽음을 당하여 가문 자체가 멸절될 수 있는 극한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경고가 주어진 것은 고핫 자손의 임무가 언약궤와 같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민 4:19]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할 일과 멜 것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핫 자손의 생명이 그들의 능력이나 조심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규례의 철저한 준수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중재적인 장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 중재가 곧 고핫 자손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처럼

생명이 걸린 임무는 규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은 "[민 4:20]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원어 '보지 말 것<라야>'은 '단순히 보는 것', '응시하는 것' 모두를 금지하며, 이는 인간의 호기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계시 영역을 자의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기에, 죄인인 인간은 잠시라도 그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출 33:20]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확증합니다.

이 죽음의 경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마 27:51)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새로운 산 길을 통해 대제사장이신 그리

스도의 중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나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인간적인 지식이나 호기심(성소를 보려는 마음)을 앞세워 교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맡겨진 사역이 생명을 건 일임을 깨닫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만 겸손히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 4:2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4:22]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민 4:23]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 4:24]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민 4:25] 곧 그들은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민 4: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민 4:27]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민 4:28]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민수기 4장의 이 단락은 레위 지파 세 아들 중에서도 성막의 외적인 부분과 영광을 담당했던 게르손 자손에게 부여된 세밀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소의 외적인 증거(witness)와 보호에 필요한 모든 봉사가 철저한 질서와 성숙한 책임감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도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를 기준으로 총계되었는데, 이는 거룩한 봉사에는 충분한 지혜와 경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가장 부드럽고 가시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곧 "[민 4:25]성막의 양장들과<예리앗> 회막과 그 덮개" 등입니다. 원어 '양장'<예리앗>은 '덮는 천', '휘장'을 뜻하며, 덮개<미크세>는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내부(언약궤)를 세상의 눈과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추는 경계와 영광의 외피를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성막의 화려한 휘장과 기능적인 해달 가죽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월성과 백성의 죄성을 가리는 중재를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봉사는 교회의 외부적인 증거(Witness)와 복음의 가시적인 영광을 다루는 사역을 예표합니다. 성막의 외피는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내부만큼이나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 또한 결점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후 4:7]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약한 질그릇(게르손의 부드러운 덮개)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일은 “[민 4:27]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라는 엄격한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외적인 일조차 가장 높은 제사장적인 권위의 지속적인 감찰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원어 ‘맡길 것이니라’<나탄>은 ‘주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멜 짐의 할당은 제사장의 위임된 권한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게르손의 직무를 겸손하고 질서 있는 봉사의 모범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시적인 봉사나 외적인 증거가 내적인 순종과 영적 권위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필수적인 일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민 4:29]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민 4:30]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 4:31]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민 4:32]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멜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민 4:33]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민수기 4장의 이 단락은 레위 지파의 세 번째 아들인 므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가장 무겁고 힘든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구조적인 부분 역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일꾼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므라리 자손 역시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라는 엄격한 복무 연령을 기

준으로 계수되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핵심적인 골격과 지탱 구조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민 4:31]장막의 널판들<케레쉬>과 그 기둥들<아무딤>과 그 받침들<아단>" 등이었습니다. 원어 '널판'<케레쉬>은 '프레임', '골조'를 뜻하며, '받침'<아단>은 '기둥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했지만, 크고 무거웠으며 성막이 광야의 바람과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기초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므라리 자손의 직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과 육체적인 고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민 4:32]너희는 그들의 맡아 멜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는 명령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명목을 지정<파카드>하라는 것은 '낱낱이 세어서 목록을 만들라'는 뜻으로, 무거운 짐일수록 오차 없이 정확하게 운반되어야 할 엄격한 책임 소재를 확립하는 것이었

습니다. 이 무거운 구조물을 운반하는 므라리 자손의 봉사를 통해 교회가 도덕적, 교리적 무너짐 없이 세상 속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내적인 기초 사역의 중요성을 예표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므라리 자손의 짐을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나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듬는 무거운 책임으로 해석하며, 사역의 고됨을 감당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므라리 자손에게 할당된 가장 큰 규모의 인원(3200명)은 "[고전 3:11]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의 구조적 기초를 세우고 지키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역에 있어 눈에 띄는 앙장(게르손)이나 거룩한 기구(고핫)를 다루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 재정, 봉사, 기도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를 지탱하는 짐(므라리)을 성숙함과 책임감으로 기꺼이 지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 4: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향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민 4:35]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민 4:36]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 천칠백오십이니

[민 4:37]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향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민 4:38]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민 4:39]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민 4:40]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천육백삼십 명이니

[민 4:41]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민 4:42]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민 4:43]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라

[민 4:44]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천이백 명이니

[민 4:45]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민수기 4장의 이 단락은 레위 지파 세 아들(고핫, 게르손, 므라리)의 실제적인 복무를 위해 구별된 인원을 최종적으로 집계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거룩한 사역이 인간의 감정적인 열심이 아닌, 체계적인 질서와 영적인 성숙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계수의 기준은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삼십 세라는 기준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제사장 직분(아론)을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와 충분한 훈련을 마친 연령을 의미하며, 원어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차바>은 '조직적인 군사적 봉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레위인들의 이러한 복무 연령 제한은 단순한 체력적 기준을 넘어 영적인 성숙이 교회 공동체

의 사역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딤후 3:6]갓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심판에 빠질까 함이요"라는 신약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경륜과 지혜,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레위인의 복무 기간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장 충만한 시기(30-50세)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각 가족별로 계수된 인원수는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그리고 므라리 자손 3,2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므라리 자손이 세 가족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는 점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널판, 기둥, 말뚝 등 가장 무겁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초 구조물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화려함이 없는 봉사를 수행하는 지파의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사역(고핫)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초를 다지는 사역(므라리)을 동등하게, 혹은 더 많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자손의 다양성이 "[고전 12:4]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의 통일성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고핫은 내면의 진리(성물)를, 게르손은 외적인 증거(휘장)를, 므라리는 지탱하는 기초(구조)를 상징하며, 이 세 가지 봉사가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성막(교회)이 광야를 무사히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여 고핫이나 게르손의 직분만을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곳(므라리처럼 기초를 다지는 사역)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자신의 멜 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복무는 "[민 4:45]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행해졌음이 재차 강조되는데, 이는 봉사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합니다.

[민 4: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민 4:47]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 봉사와 메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

[민 4:48]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팔천오백팔십 명이라

[민 4:49]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민수기 4장의 마지막 단락은 회막 봉사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레위인의 최종적인 병력을 집계하는 결론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거룩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인적 자원이 최고의 성숙도와 책임감을 가질 때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라는 복무 연령을 기준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파카드>의 총수가 팔천 오백팔십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어 '계수함을 입은 자'<파카드>는 '방문하다', '임명하다', '돌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

시고 책임지시는 구별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이 팔천 오백팔십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군사(60만 명 이상)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적은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다수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소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레위인의 최종 계수를 교회 내에서 성숙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의 숫자로 해석하며, 소수의 헌신된 사역자들의 가치가 대규모의 평신도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탱하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계수 과정은 "[민 4:49]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할 일은 맡겨진 사역의 종류를 의미하며, 멜 일은 책임져야 할 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할 일)과 그 책임에 따르는 무게(멜 일)가 할당된다는 정교한 분

업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원리는 "[고전 12:4]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5]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단락의 궁극적인 결론은 "[민 4:49]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걸친 모든 조직화와 계수 과정의 영적인 유효성과 성공의 비결이 인간의 완벽한 계산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도자(모세)의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맡겨진 짐을 성숙함으로 기꺼이 지되, 그 성공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평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5 장 =====

[민 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민 5:3] 무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진영의 물리적, 영적 정결에 대한 엄중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둥병자, 유출병자,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예외 없이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조치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정함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죄의 결과(문둥병), 생명의 파괴와 허무함(주검으

로 인한 부정), 그리고 생명의 질서 파괴(유출병)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진 밖에 격리된 근본적인 이유는 "[민 5:3]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라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 전체가 곧 거룩함의 연장선이 되어야 했고, 그 거룩함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상세히 다루는 이 정결법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 내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진영 밖으로의 축출을 죄와 부패로부터의 영적 분리로 해석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모든 죄악과 불건전한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단절해야 할 영적인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민 5: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5: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민 5: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다음 단락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한 죄를 다루는 배상과 속건제의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죄는 단순히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여호와께 거역하여 죄를 짓는<마알> 행위, 즉 언약적 불성실을 의미하는 "허물"<마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의 용서가 단지 내적인 고백(자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배상(갚되)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상에는 단순히 피해액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오분지 일<호메쉬>, 즉

20%를 더하여 갚으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20%는 죄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인정하고, 화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6장의 속건제 규례를 보충하며, 죄의 용서가 피해 당사자와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배상을 받을 친척이 없을 경우, 그 배상금은 하나님께(제사장에게) 드리지도록 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란 감정적인 눈물이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서적 손해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 보상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눅 19:8]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정의로운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민 5:9]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 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민 5:10]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 구절들은 성물, 즉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에 대한 제사장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제"<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높이 들어 올리는 예물을 의미했으며, 이 거룩한 예물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물질적인 책임을 공동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성물과 십일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전 9:11]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가르쳤던 복음 사역자에 대한 마땅한 물질적 부양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곧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탱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영적인 순환 고리를 이해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5: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5: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민 5:13]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민 5:14]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민수기 5장의 가장 길고 특이한 부분인 "질투의 법"(소타, <쏘타>) 규례가 시작됩니다. 이 규례는 "탈선하여"<사타> 남편에게 범죄했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 즉 숨겨진 간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긴 법입니다. 원어 '탈선하다'<사 타>는 '옆으로 비켜가다', '빗나가다'를 뜻하며, 이는 결혼 언약이라는 정해진 길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가 존재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은 명예와 가문 순결을 중시했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의심"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복수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분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져가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질투의 법은 단지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칭하시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호세아,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대상의 순결과 충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

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께 불충실하는 영적인 간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 5:15]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십분지 일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민 5:16]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민 5: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민 5:18]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이 "질투의 법" 또는 "의심의 소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죄를 다루시는 가장 독특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결혼 언약의 순결성이 인간의 증거

가 불충분할 때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에서 바치는 예물은 보리 가루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가장 값싼 곡물이자 가난한 자의 예물을 의미했으며, 여기에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도록 명하심으로써 이 예물이 기쁨이나 감사가 아닌 죄악과 슬픔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의 준비 과정은 극도로 상징적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섞는데, 이 티끌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저주를 상징했던 요소이며, 이것이 거룩한 물(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섞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악된 현실에 개입하여 심판을 집행할 것임을 예표합니다. 또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는 행위는 그녀의 명예와 감추어진 내면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노출시킨다는 수치와 노출의 상징이었습니다.

[민 5:19]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민 5:20]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민 5:21]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민 5:22]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지니라

[민 5:23]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민 5:24]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 단락은 의심의 법의 가장 강력하고 구속적인 부분인 저주의 맹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씻어 넣는 극도의 상징적인 행위를 수행했

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저주)이 액체화되어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말씀의 효력이 그녀의 육체에 직접 작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인은 이 저주의 선언에 대해 "[민 5:22]아멘 아멘 할지니라"라고 응답했는데, 이 '아멘'<아멘>은 '정말 그러하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가지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인간의 증거가 없는 은밀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죄를 범한 여인은 심판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롬 6:23]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처럼, 이 쓴 물은 죄의 쓴 결과를 육체로 경험하게 하는 율법의 엄중한 거울이었습니다.

[민 5:25]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민 5:26]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민 5:27]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민 5:28]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민 5:29]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민 5:30]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민 5:31]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사장이 의심의 소제물을 먼저 단 위에 태워 소

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사건을 기념(기억)하게 하는 최종적인 봉헌 행위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운 후의 결과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여인이 유죄라면, "[민 5:27]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라는 눈에 보이는 심판을 통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죄하다면 "[민 5:28]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는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잉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과 축복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질투의 법을 통해 결혼 언약의 신성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예표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심을 가지셨으며, 이 질투심은 언약을 지키려는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법이 인간의 재판이 불가능한 은밀한 죄를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신적 공의의 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파헤치시는 엄중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하

시고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자비의 확증임을 깨
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판보다 하
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순
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잉태)을 간구해
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 장 =====

[민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6: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 6: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민수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남자나 여자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는 나실인의 서원 규정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 지파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직분 외에도,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전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 '나실인' <나지르>은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어 제사장에 준하는 거룩한 삶을 살

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세 가지 주요 금지 사항을 포함하는데, 이 단락은 그 첫 번째인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멀리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을 넘어, 포도즙, 초(식초), 생포도, 건포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 그리고 세상적인 환희와 도취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는 세상적인 쾌락과 도취를 스스로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금지는 나실인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엡 5:18]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나실인은 육신의 취함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추구해야 할 그리스

도인의 영적인 삶을 예표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모든 신자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할 영적인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순결을 조금이라도 해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6: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민 6:6]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민 6:7]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민 6:8]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단락은 나실인 서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요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세상적인 관습과 자연적인 의무보다 우선순위가 높음을 강조합니다.

“[민 6:5]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는 명령은 나실인 서원의 두 번째 금지 사항입니다. 머리털은 원어 ‘표’<네제르>로 불렸는데, 이는 ‘왕관’, ‘구별된 표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나실인의 헌신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 공개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머리털은 곧 나실인을 지탱하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이 규정은 나실인이 자기 몸을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음을 나타내는 겸손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민 6:6]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는 나실인 서원의 세 번째 금지 사항입니다. 시체를 만

지는 것은 율법상 가장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민 6:7]그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라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인 의무의 순간에조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나실인의 거룩함이 혈연이나 세상의 슬픔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에 놓여 있음을 확증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시체 금지를 통해 나실인이 죽음과 죄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나실인의 거룩함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죽음과 죄의 관습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추구해야 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마 8:22]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혈육의 죽음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우선해야 할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민 6:8]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는 최종적인 선언은 이 모든 금지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실인의 삶 전체를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음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나실인처럼 세상적인 쾌락(포도주)과 자아의 주권(머리털), 그리고 세상의 죄와 죽음(시체)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 6:9]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성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칠일에 밀 것이며

[민 6:10] 제팔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민 6:11]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민 6:12]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이 단락은 나실인이 "홀연히"<피트옴> 즉,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수로 인해 시체에 접촉하여 구별한 머리를 더럽혔을 때의 정화 및 회복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어 '홀연히'<피트옴>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라는 뜻으로, 이 나실인이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상태는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거룩함의 기준은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있었습니다.

부정함의 결과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민 6:12] 전에 구별한 기한은 무효가 되느니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어 '무효가 되느니라'<야할>은 '속되게 되다', '더럽혀지다'는 뜻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헌신과 금식이 한순간에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의 시간은 절대적인 순수성을 요구하며, 죄와 죽음의 영향력은 가장 헌신된 자의 삶조차도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화와 회복의 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했습니다. 먼저 그는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 부정함이 묻은 헌신의 상징을 제거해야 했고, 속죄제(죄의 용서), 번제(새로운 헌신), 그리고 속건제(언약 위반에 대한 배상)라는 세 가지 핵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속건제<아>는 '위반', '배상'을 뜻하며, 이는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못한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통해 개인의 영적인 약속을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회복 절차를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헌신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불완전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나실인의 잦은 실패와 재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없이는 인간이 결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패나 실

수가 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속죄제)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속건제를 드렸듯이 새로운 결단과 헌신(기한을 새로 정하고)으로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 6:13]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민 6:14]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민 6:15]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민 6: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 6:17] 화목 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

릴 것이요

[민 6:18]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이 단락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정결하게 하는 최종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조차도 엄격한 율법적 규례를 통해 제사장과 성소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기한이 차면' <말레>은 '완전히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으로, 나실인이 스스로 세운 헌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기한이 찼을 때 세 가지 주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수양): 나실인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져 드리짐을 상징하며,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물(암양): 나실인 기간 동안 혹시 모를 무지한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며,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수양):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며,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번제(전적 헌신) + 속죄제(정결) + 화목제(교제)라는 삼중적인 제사는 나실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로 귀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무교병, 소제물, 전제물과 같은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은 나실인의 삶과 그 수고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합니다.

“[민 6:18]자기의 구별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라는 행위는 나실인 서원의 가장 상징적인 종결이었습니다. 머리털은 나실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능력과 구별의 표징이었는데, 이것을 화목제물 밑 불

에 두는 것은 나실인의 모든 수고와 구별된 시간이 제사라는 거룩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화목)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부여받고 봉헌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개인의 헌신이 세상적인 기념이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기로 사라져야 할 거룩한 봉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일시적인 기간에 국한된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나실인의 실체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포도주(세상의 쾌락)를 멀리하셨고(마 26:29), 삭도(세상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며, 죄의 시체(인류의 죄)를 지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다시 서원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단번의 완벽한 헌신이었으며, 나실인이 드린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안에서 비로소 궁극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머리털)를 자랑하거나 기념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화목(십자가)이라는 불위에서 겸손히 불살라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 6:19]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민 6:20]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들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민 6:21]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단락은 나실인 서원 기간의 성공적인 종료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율법적 절차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서원 기한을 채운 후, "[민 6:19]자기의 구별한 머리털을 민 후에" 그 머리털과 함께 삶은 수양의 어깨, 무교병, 무교전병 등을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무교병은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이었으며, 제사장은 이를 "[민 6:20]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 흔들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로서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원어 '요제'<테누파>는 '흔들어 바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나실인의 헌신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졌음을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 밑 불에 두는 행위는 나실인 기간 동안의 모든 수고와 구별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영원한 가치로 인정받고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나실인에게는 "[민 6:20]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는 자유의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나실인이 자발적으로 짊어졌던 율법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적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이 율법적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21절은 나실인의 서원을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강조합니다. 첫째, "[민 6:21]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라고 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법)를 명시했습니다. 둘째,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고 하여 자발적인 헌신(낙헌제)의 영역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어 '힘이 미치는 대로' <아셀 야드>는 '손이 닿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자발적인 헌신의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넘어 개인의 능력과 감격에 따른 최대한의 헌신이 허용되고 장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러한 낙헌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봉헌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고후 9:7]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넘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능력을 따라 최대한의 자발적인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6: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6: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민 6: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 6:25]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 6: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

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 6: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단락은 나실인의 서원 규례를 마친 후, 아론과 그 아들들(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되는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축복의 말씀인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막 봉사와 개인의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는 데 있음을 확증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이 축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 구절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여호와)이 세 번 반복된다는 삼중 구조입니다. 이 삼중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언약적 선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27절의 "[민 6:27]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최종 선언은 축복의 주체가 제사장의 행위가 아니라, 그 축복을

명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민 6:24]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 시기를 원하며”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어 물질적 번영과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축복입니다. 원어 '지키시 기를'<사마르>는 '파수꾼처럼 경계하고 보호하 다', '울타리를 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광야의 위험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능동 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복 은 곧 생명과 땅의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 을 통해 성도의 삶을 견고히 보호하고 인도하심 을 예표합니다.

“[민 6:25]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긍휼을 구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 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쁘게 바라보 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는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언약적 표현입니다. 원어 '은혜'<하난>는 '호의를

베풀다, '공홀히 여기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고후 4:6]이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 6:26]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은 모든 언약적 관계의 최종적인 목표를 선언합니다. 원어 '평강'<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온전함, 완전함, 모든 관계의 조화를 뜻하는 가장 깊고 포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백성을 향해 고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흔들림 없는 사랑이 곧 평강의 근원입니다. 이 평강<shalom>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 9:6]평강의 왕"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안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영적인 약속이며, 우리는 이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신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삼가다' 또는 '스스로를 헌납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포함하여 독주를 삼가고 술 취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며 시신에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민 6:2-8).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으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는 물론이고 포도즙이나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술이 정신을 혼미케 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술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때에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술이 우상숭배를 행하게 하는 유혹의 것으로 취급하시고 술을 금하신 것입니다.

“[민 6: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 6: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한 나실인 서원 기간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길러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나실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것을 나실인의 상징으로 사람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히 유지하고 조금의 흠도 없이 온전히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밀어 버렸을 때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을 때 생명의 주관자되시고 능력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였던 것입니다.

“[민 6: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한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해된 것과 죽은 시체는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지불식간에 시체와 접촉할 경우엔 다시 머리를 밀고 서원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부모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민 6: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민 6: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의 영적의미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사악한 우상숭배자들과의 영적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실인은 필요합니다. 나실인이 있어야 마귀의 악한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악한세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나실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일정한 기간에만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서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은 천사를 통해 세례요한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고보는 바울에게 나실인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의 나실인 종료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주면서 나실인 서약을 마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행 21: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행 21: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소 나실인 서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보이지만 나실인 서원이 구약시대의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어져 왔지만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중심으로 스스로의 성전을 유지해 가는 신

양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어떠한 의식적이고 드러나는 제도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형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나실인'이란 말은 오늘날 '거룩한 신부'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로 설명될 때에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인 셈입니다.

민수기 7 장 =====

[민 7:1]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민 7:2]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민 7:3]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둘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민수기 7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장막(회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자발적인 예물을 드린 사건입니다. 원어 '봉헌하다'〈하낙〉는 '봉헌' 또는 '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건물을 완성한 것을 넘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공식

적인 언약적 교제가 이 공간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뿔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 둘"이었는데, 이 예물들은 그들의 종족의 두령으로서, 즉 대표성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대신하여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는 지도자들의 앞장선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헌신은 예배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도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물들이 회막 앞에 드러진 것은 지도자의 헌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사역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구별하는 봉헌의 자세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우리의 리더십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실질적인 자원을 드리려는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 7: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7:5]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민 7:6]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민 7:7]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민 7:8]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케 하였으나

[민 7:9] 고탃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족장들이 드린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분배에는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세 자손 중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게만 수레와 소가 주어졌고, 고탃 자손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 철저한 분업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휘장과 덮개 등 가볍지만 부피가 큰 물품을 맡았기에 수레 둘과 소 넷이, 므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말뚝 등 무겁고 거대한 구조적 기초를 맡았기에 수레 넷과 소 여덟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탕 자손은 언약궤, 분향단 등 지성물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가장 거룩한 성물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운반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람의 어깨로만 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삼하 6:6-기웃사의 죽음]" 사건을 통해 그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시대에 이 규례를 잊고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임재를 다루는 사역(복음 전파, 예배)은 세상의 편리함이나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헌신된 사람의 순수한 영적 능력과 힘(어깨)으로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민 7:10]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민 7: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민 7:12] 제일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민 7:13]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14]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1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16]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17]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민 7:18] 제이일에는 잇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민 7:19]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20]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2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22]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23]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민 7:24] 제삼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민 7:25]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26]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2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28]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29]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

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민 7:30] 제사일에는 르우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민 7:31]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32]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33] 또 번죄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34]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35]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민 7:36] 제오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수리샷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민 7:37]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38]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

는 향을 채웠고

[민 7:39]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40]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41]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셋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민 7:42] 제육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민 7:43]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44] 또 십 세겔중 금손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4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46]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47]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민 7:48] 제칠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

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민 7:49]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50]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5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52]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53]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 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민 7:54] 제팔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민 7:55]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56]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5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

나와 일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58]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59]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민 7:60] 제구일에는 베나민 자손의 족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민 7:61]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62]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63]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64]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65]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민 7:66] 제십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으니

[민 7:67]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68]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
는 향을 채웠고

[민 7:69]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
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70]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71]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
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
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민 7:72] 제십일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
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민 7:73]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74]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
는 향을 채웠고

[민 7:75]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
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76]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77]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민 7:78] 제십이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민 7:79]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중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민 7:80] 또 십 세겔중 금순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민 7:81]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민 7:82]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민 7:83]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 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더라

이 긴 단락은 성막 봉헌 직후 열두 지파 족장들이 12일에 걸쳐 드린 단 봉헌 예물의 상세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봉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지속적

이고 통일적이며 완전한 헌신 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봉헌'<하낙>은 '새로이 사용하기 시작하다', '취임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족장들의 이 예물이 단을 거룩한 제사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봉헌하고 사용을 개시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민 7:11]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명하신 것은, 12일이라는 완전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배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며, 모든 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목록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예물의 내용이 12일 동안 단 한 가지도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큰 지파이든, 납달리 지파와 같은 작은 지파이든, 그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와 무게, 가치는 균일했습니다. 이 엄격한 획일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인간의 세력, 재물, 혹은 지파의 규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양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표준을 지키려는 마음의 정성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금과 은, 그리고 세 종류의 제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반과 은바리는 속죄와 정화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헌신을 상징하며, 금 숟가락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번제(전적 헌신), 속죄제(죄 용서), 화목제(교제)라는 세 가지 핵심 제사를 모두 드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헌신, 정결, 화평)을 완벽하게 포괄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12일의 반복된 기록을 통해 신앙생활에 있어 일관성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례와 질서를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비교나 경쟁을 버리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언약의 표준을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 12일의 동일한 목록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7:84]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손가락이 열둘이니

[민 7:85] 은반은 각각 일백삼십 세겔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겔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이천사백 세겔이요

[민 7:86] 또 향을 채운 금손가락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십 세겔중이라 그 손가락의 금이 도합이 일백이십 세겔이요

[민 7:8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둘이요 수양이 열둘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열둘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열둘이며

[민 7:88] 화목제물로 수소가 이십사요 수양이 육십이요 수염소가 육십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육십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민 7:84]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순가락이 열둘이니 [민 7:85] 은반은 각각 일백삼십 세겔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겔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이천사백 세겔이요 [민 7:86] 또 향을 채운 금순가락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십 세겔중이라 그 순가락의 금이 도합이 일백이십 세겔이요 [민 7:87]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둘이요 수양이 열둘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열둘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열둘이며 [민 7:88] 화목제물로 수소가 이십사요 수양이 육십이요 수염소가 육십이요 일 년 된 어린 수양이 육십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 단락은 열두 지파 족장들이 단 봉헌을 위해 12일 동안 드린 모든 예물의 총결산과 최종 수량을 기록하는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드러진 이 모든 헌신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정확하고 완벽한 봉헌이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의 총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은반과 은 바리의 도합<쿨> 무게는 이천사백 세겔이었고, 금 숟가락의 무게는 일백이십 세겔에 달했습니다. 원어 '세겔'<셰켈>은 고대 이스라엘의 표준 화폐 단위이자 무게를 의미하며, 이처럼 정확한 무게를 기록한 것은 이 예물의 물질적인 가치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러진 헌신의 성실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은은 때로 속전을 상징했으며, 금은 영광과 신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기구의 봉헌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한 헌신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총체적인 예물에는 세 종류의 핵심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수양, 어

린 수양이 각각 열두 마리씩(총 36마리) 드러졌고,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속죄제물로 수염소 열두 마리가 드러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 죄의 용서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총 백이십 마리의 동물이 드러졌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식탁 교제를 의미하며,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세밀한 양의 제물이 하루도 빠짐없이 12일 동안 드러진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고 막대한 희생이 요구됨을 강력히 증언합니다. 이 물질적, 육적인 제사의 방대함은 단 한 번에 드러진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충분한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 9: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선포하며, 이 모든 방대한 구약의 제사 목록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단번의

대속 안에서 영원한 가치로 완성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헌신을 측정하는 기준을 세상의 화려함이나 수량에 두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헌신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총체적인 봉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7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구절은 앞선 모든 복잡하고 상세했던 규례와 헌신이 지향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모든 헌신과 봉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증거궤 위 속죄소 <카포레트> 위에 있는 두 그룹<케루빔>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어 '속죄소' <카포레트>는 '덮개', '속죄판'을 의미하며, 이곳은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속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신약 시대에 대속의 피를 통해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모세가 들은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쉐키나)이었습니다. 즉, 모든 질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외적인 성과나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회막)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궁극적인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 지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정해 놓은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이미 당신도 아다시피 지성소는 성막의 맨 끝부분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목사님, 성막은 구약시대의 산물이 아닙니까? 요즘같이 성령시대에 무슨 왜래물은 구약의 산물이라뇨?”라면서 지성소에 대한 신뢰를 별로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비록 지성소가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장소일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지성소를 떠나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뿐

더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를 가리켜 구약의 쾌쾌묵은 산물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셨으며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민 7:89)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데 오히려 지성소는 서쪽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려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물두멍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일반 땅 위에 세워졌

습니다. 그래서 성막 뜯은 일반 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맨 땅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뜯에서는 1년 365일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회막이 나옵니다. 성막뜯에는 지붕이 없는 반면 회막은 지붕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성소는 정금등대가 있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아무런 빛을 내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정금등대에서 비춰지는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기둥은 지성소를 밝혔습니다. 불기둥이 지성소를 밝혔던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

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특권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는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물두멍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도 있을 것이고 정금등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분향단도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냐?’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는 필요한 성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몸 안의 지성소는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미안하게도 우리의 몸은 어느 부분에서도 성막의 성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몸을 해부한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을 때 그 ‘성전’은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눈과 코처럼 정해진 장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있을 지성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골방을 찾으라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지성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다소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기도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화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적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최대한 한적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

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골방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당신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준비한 골방은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성막기도를 드리십시오

골방을 성막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지성소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자세로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사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 골방은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며, 악한 세력이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몸이 불편

하면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 느껴지는 증상과 몸이 불편해서 느껴지는 증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편안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앉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할 경우엔 의자에 앉으십시오. 의자가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경우엔 바닥에 앉아서 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경우엔 골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캄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게 되면 환한 불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반에 편성되어서 반장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컴퓨터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반장의 인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같습니다. 반장의 인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반장 없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제 아내와 영성을 시작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용했던 골방이 같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막기도반에서 반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막기도반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을 돕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다소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막기도반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막기도반에서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홀로 기도 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영은 점점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오직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리에 끈을 묶은 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된다면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끈을 잡아 당겨서 죽임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끈을 묶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

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속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성막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막에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 막았던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막문을 통과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다음 성소로 들어가 진설병에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불빛을 의지하여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에 이미 모세의 죄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히 휘장을 들추고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히 4:16).

나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막문을 엽니다. 신앙고백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성막문을 통해 기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주님께 대한 헌신을 약속했고 물두멍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진설병에서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였으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천사의 노래소리도 들었으며 주님을 만나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다시 한번 보혈을 뿌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매번 영이 새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처럼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 드리고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만나는 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다.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고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교회를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 11: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행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민수기 8 장 =====

[민 8: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8:2]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취게 할지니라 하시매

[민 8:3]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취도록 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민 8:4]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밀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봉헌 사역에 앞서 성막 안의 예배가 얼마나 정확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등대의 불을 밝히는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의 봉사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시작되기 전에, 성소의 예배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대<메노라>는 "[민 8:4]금을 쳐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순수한 헌신을 통해 완성됨을 상징합니다. 원어 '등대'<메노라>는 '빛을 비추는 기구'를 뜻하며, 이 등대가 칠지<세바>(일곱)의 등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빛이 "[민 8:2]등대 앞으로 비취게 할지니라"는 명령을 통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이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속죄소와 성소 안)을 향해야 함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등대는 곧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양을 따라 정확히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등대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

해야 하며, 자기 의나 자랑을 위한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서 있고 순결한 빛이어야 할 것입니다.

[민 8: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8: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민 8:7]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민 8:8]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물로 취하고

[민 8:9]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민 8:10]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이 구절들은 성막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 복잡하고 엄숙한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대속적 원리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이 성막의 봉사를 수행하기 전에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레위인들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을 삭도로 밀게<가라흐> 하고, 의복을 빨게 하는 삼종의 정결 예식을 거쳤습니다. 원어 '정결케 하다'<타헤르>는 '깨끗하게 하다', '순수하게 만들다'는 뜻을 가지며, 몸을 삭도로 미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전의 상태와의 완전한 단절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 후, 레위인들은 온 회중의 안수를 받았는데, 이 안수<사마흐 야드>는 '손을 엮다', '위임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직무를 대신하여 봉사하도록 공동체의 공식적인 승인과 위임을 받는 행위였

습니다. 이어서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하였는데, 원어 '요제' <테누파>는 '흔들어 바치다'는 뜻으로, 이는 레위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봉헌물이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죄를 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거룩한 직분에 부름 받은 자들조차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으며, 오직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사역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준비보다 영적인 정결함을 먼저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받은 사명이 공동체로부터 위임된 거룩한 헌신임을 깨닫고 겸손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를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단락은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 대속과 봉헌의 두 핵심 원리를 통해 영적으로 완성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대신하는 속전(贖錢)이자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 헌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부정을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였으며, 이 제물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레위인들이 정결함을 얻는다는 신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제물 중 하나는 속죄제물로, 이는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위한 재봉헌을 의미했습니다.

이어 레위인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어 '요제' <테누파>는 '흔들어 바치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상

징하는 예물을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요제의 절차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흔들어 바치시는 완전하고 유일한 헌신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음을 예표합니다. 레위인이 이처럼 속죄와 번제를 통해 정결케 되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된 것은, 인간의 봉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 위에서만 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 재능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거룩한 소유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 8: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 8:15]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 단락은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위해 정결하게

되고 봉헌되어야 하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근거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을 "[민 8:14]내게 속할 것이니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구별하라' <바달>은 '분리하다', '성별하다'는 뜻을 가지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영구적인 구별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처음 난 것은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았기에 "[민 8:17]다 내게 속하였음"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주장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장자의 생명 값을 대신하기 위해 레위 지파가 속전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분은 단순히 성막의 잡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 8:19]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라는 말 씀처럼 속죄와 보호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영적인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이 대속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궁극적인 대속의 원리를 예표합니다. 바울 사도가 "[롬 8:29]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선언했듯이, 그리스도는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참된 초태생(Firstborn)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값주고 산 바 된 거룩한 것임을 깨닫고, 레위인처럼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데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민 8:19]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단락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근거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대속과 보호의 원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반이 됩니다.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속하였음"이라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

을 보존받았기에, 그 모든 초태생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합니다. 레위인들은 이 모든 장자의 생명 값을 대신하기 위해 속전(贖錢)이자 대속물로 취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대속의 원리를 통해 집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이 취해진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민 8:19]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성소의 거룩함과 일반 백성들의 죄악 사이에서 중재적인 장벽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여 진노를 사는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완충지대였습니다.

이 레위인의 보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딤후 2:5]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소(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며, 레위인처럼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8: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민 8:21]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케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민 8:22]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 단락은 레위인들이 봉헌 예식을 끝내고 공

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마지막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의 봉사가 단순히 지도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민 8:20]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좇아 행하였으되"라는 말씀처럼 온 공동체의 절대적인 순종과 참여를 통해 영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완성은 레위인들 스스로의 결단과 제사장의 중재라는 두 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 8:21]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케 하고 그 옷을 빨매"라는 구절은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조차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려는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아론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고 속죄하여 정결케 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옷을 빨는 행위)이 제사장의 중보(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준행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질서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레위인

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민 8:22]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는 이 결론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없음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레위인들은 비로소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자신이 받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정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영적인 효력을 얻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 8:23]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8:24]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 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민 8:25] 오십 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민 8:26]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

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8장의 이 마지막 규례는 레위인의 사역 연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봉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건강과 영적인 안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봉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간의 유한한 육체와 능력을 존중하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데 있었습니다.

“[민 8:24]이십 오 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라는 규정은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십 오 세부터 강건함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원어 '복무하다' <차바>는 '조직적인 군사적 봉사'를 뜻하며, 이처럼 힘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활동적인 사역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은 “[민 8:25]오십 세부터는 그 복무하는 일에서 쉴지니 다시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였습니다. 원어 '쉴지니' <야수브>는 '돌

아가다, '휴식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유한한 육체와 능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쉼을 허락하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시기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은 지도력의 효율성과 사역자의 건강을 동시에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민 8:26]그들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봉사를 멈추더라도 회막 근처에 머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를 돕는 지원 역할은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규정을 교회 내 은퇴와 세대 교체의 모범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역에 있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젊을 때는 열정으로, 연륜이 있을 때는 지혜와 멘토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영적의미

정금등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정금등대만이 빛을 내었습니다. 정금등대의 빛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짚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금등대의 빛은 주님을 상징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듯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의 인도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성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우리 심령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전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오직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정금등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판(base)'은 넓은 판으로써 등대를 똑바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줄기(shaft)'는 양 옆에 세개의 가지들을 붙들고 있는 한가운데 위치한 줄기입니다. '잔(bowl)'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등잔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잔은 모두 22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 세 줄기마다 각각 세개씩 있어서 $9+9 = 18$ 개이며 중앙 가지에 4개가 더해져서 모두 22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꽃받침(knob)'은 꽃잔을 받쳐주는 밑줄기로서 모두 22개였습니다.

다. 또한 '꽃'(blossom)'은 각 잔에 붙어 있는 꽃
잎 모양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양쪽으로 각각 세 가지로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세 가지는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한 가운데 줄기를 통해 완
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한 수를 7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6은 인
간의 숫자이고 불완전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우
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
해집니다.

모든 가지는 살구꽃 형상을 띄고 있는데 우리
에게 알려진 살구꽃이 아니라 '알몬드(almond)'
입니다. 영어 성경은 살구꽃을 알몬드로 표기하
고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히브리인들에게 부활
과 희망 또는 보호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러한
등대모양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國
章)이 되었습니다.

정금등대의 등잔은 모두 일곱개입니다. 정금등
대의 불은 모두 잎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금등대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빈다.
정금등대에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함께 있습
니다. '불집게'는 등잔의 타버린 심지를 자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불뚱그릇'은 등대에서 타
서 떨어진 심지를 모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러한 기구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었
습니다. 진설병의 부속기구들(대접, 숟가락, 주
발, 잔)이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정금
등대의 부속기구들 또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
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모두 '정결'과 '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금등대와 정금등대에 딸린 부속기구들을 만
드는데 사용된 금은 '한 달란트'였습니다.

"[출 25: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한 달란트(talent)는 약 34kg에 해당됩니다.

안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은 바울의 안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1~6)

안수는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안수함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때에도 이

와 같이 행했습니다.(민 27:18) 그 뿐 아니라 속죄물로 바쳐졌던 짐승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출 29:10)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행 13:3) 초대교회는 일곱명의 집사를 선별하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행 6:5~6)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정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의 자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충만한 성도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라고 명했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행 9:10~12)

아니아는 평범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도 환상으로 아니아가 저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직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가 마음껏 안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언을 전하게 하십시오. 방언하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내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수는 직분에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안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사도 안수할 수 있고 권사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서도 안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해선 안됩니다. 안수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수는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피안수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바라거나 어떤 유익을 바라면서 행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행 8:14~23)

시몬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로부터 큰 자라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귀신을 쫓아 내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쳐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기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좇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선 더 놀랐습니다. 마술사인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단순한 마술처럼 생

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기를 원했으므로 사도들에게 돈을 쥐 그 권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정욕대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 5:22)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늘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안수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직분을 줄 때만 안수를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례의식을 행할 때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수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축복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수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안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히 6:1~2)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 중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헌금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에 대한 단어도 빠져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헌금'이나 '모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모두 다 복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헌금이나 모임이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헌금이나 모임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

다.

가정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더 많은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안수는 전이(impartation)의식입니다. 이미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저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우리는 안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전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딤후 1:6 NIV).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

는데 그 은사는 바울의 안수함에 의해서 받은 것 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가 은사를 전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 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단순히 목 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 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 면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든 바울의 안수에 의해 그것이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능력을 전이하게 하 며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전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안수해도 소용 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광체험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가장 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법칙이 적용될 때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에게서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악의 대물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 는 교인들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 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광을 전이하지 못하는 목 회자는 더 이상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

리 나쁜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외에는 당신과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는 이미 당신의 목회자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를 당신도 버리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곤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도록 내 버려 두셨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민수기 9 장 =====

[민 9: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9:2]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민 9:3] 그 정기 곧 이달 십사일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민 9: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민 9:5] 그들이 정월 십사일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행하였더라

민수기 9장의 첫 부분은 시간적으로 민수기 1장과 7장보다 앞선, 즉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에 주어진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장에서 다루었던 진영의 질서와 레위인의 헌신이라는 준비가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중심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신학적으로 강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광야 여정의 모든 준비와 조직화에 앞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예배가 그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페쇄흐>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으며,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는 핵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속량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년 고백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고전 5:7]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구원의 은혜가 결여된 봉사는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민 9:6]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민 9: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이니이까

[민 9: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어지는 구절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사람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으나, "우리를 금지하여...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이니이까"라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들의 호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며, 이는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시체로 인한 부정함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이

그 부정함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
에 나아가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들의 요청을 모세가 즉
시 거절하지 않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 하나님
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율법이 정한 엄격한 규례 속에서도 하나님
의 긍휼과 자비가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
며, 단순한 문자적 해석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려
움이나 예기치 않은 연약함(부정함)이 있을 때
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민 9: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9:10]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
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민 9:11] 이월 십사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
요

[민 9: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
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
례대로 지키는 것이니라

[민 9:13]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민 9: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
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
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
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의 호소에 응답하여 둘째 유
월절<페쇄흐 쉼니>의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시체로 부정케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자에게 "둘째 달 십사일"에 유월

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원어 '둘째'<쉐니>가 붙은 이 규례는 율법의 엄격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겔 18:32]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주목할 점은, "정결하면서도... 지키기를 태만히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라고 하심으로써, 무관심과 태만은 부정함이나 여행의 불가피성보다 더 큰 죄악임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타국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확장성을 내포합니다. 이 둘째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하

며, 죄나 환경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민 9: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민 9: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 9: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 9: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민수기 9장의 후반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막(성막)을 세운 날에 이 표징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전체가 인간의 계획이나 지도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명'〈פִּי〉은 '입', '말', '명령'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명을 좇아"〈פִּי יְהוָה〉행진하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구름의 움직임)에 철저히 종속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시편 78편에서 "[시 78:14]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라고 찬양하듯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일관되고 자비로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표징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역에서 성령의 조명(구름)을 통해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안주하려는 태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만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 9:19]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랴 때

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
치 아니하였으며

[민 9: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
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
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민 9: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
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 오르면 곧 진행하
였으며

[민 9: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
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 오르
면 진행하였으니

[민 9: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
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
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
라

마지막 구절들은 이 구름의 인도하심의 시간적
변동성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합
니다. 구름이 "오래 될 때에도" 혹은 "적을 때에
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이스

라엘 자손은 오직 여호와와 그의 명을 좇아 움직였습니다. 이는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바로 시간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타이밍(Kairos)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급함이나 지루함이라는 인간의 감정적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영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장기간의 멈춤은 지루함과 불평을 낳기 쉬웠고, 급작스러운 이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직임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빌 2:8]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지연이나 계획의 급작스러운 변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멈춤 속에서의 인내와 나아감 속에서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순종의 영성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0 장 =====

[민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0:2]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민 10:3]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민 10: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민 10:5]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민 10:6] 제이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민 10: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민 10: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레니라

민수기 10장의 이 단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은나팔이라는 영적인 통신 체계의

세밀한 운용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거대한 공동체의 모든 움직임이 혼란이나 인간적인 임의가 아닌, 제사장을 통해 전달되는 정확하고 통일된 신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나팔' <하초트라>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곧고 긴 금속 나팔을 의미하며, '쳐서 만들어서'라는 명령은 나팔이 고난과 정련을 거쳐 순수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영적인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와 하나를 불 때의 의미가 달랐고(온 회중 vs. 족장들), "울려 불 때"와 "울려 불지 않을 때"의 의미가 달랐습니다(행진 vs. 소집).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처럼 신호의 횟수와 방식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일반 회중과 지도층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여하신 영적인 계층과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의 순종이 정확한 신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팔 소리는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동편 진(유다)부터 시작하여 남편 진(르우벤) 순으로 진행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연합하여 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의 영적인 힘이 발휘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 10:8]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는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신호)이 중보자적 직분(제사장)을 통해서만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음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4:8]누가 나팔 소리를 분명치 못하게 내면 누가 역사를 예비하리요"라고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가 혼란 없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질서 있고 통일된 반응을 보여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기 의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질서 있는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 10: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

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민 10:10]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민수기 10장의 이 단락은 나팔 소리의 기능을 전쟁과 예배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두 영역으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나팔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나팔 소리는 "[민 10:9]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을 울려 부는 소리는 인간의 전략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상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원어 '기억하고' <자카르>는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는 뜻을 가지며, 나팔 소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와 그들의 곤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도

록 촉구하는 신앙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주권자로 선포하고 구원을 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배에서의 나팔 소리는 "[민 10:10]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사용되었습니다.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소리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 역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는 약속과 연결되는데, 이는 예배와 감사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이끌어내는 언약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을 예표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나팔 소리(간구)를 내어야 하며, 평안과 기쁨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나팔 소리(감사)를 냄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

님과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 10:11] 제이년 이월 이십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민 10: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민 10:1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좇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민 10:14] 수두로 유다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민 10:15] 잇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민 10:16]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민 10:17] 이에 성막을 걷으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민 10:18] 다음으로 르우벤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민 10:19]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

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민 10:20]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민 10:21]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민 10:22]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민 10:23]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민 10:24]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민 10:25] 다음으로 단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민 10:26]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민 10:27]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민 10:28]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 긴 단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실질적인 행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과 그 완벽한 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막 봉헌과 조직화라는 영적인 준비가 끝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 10:11]제이년 이월 이십일에"라는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체 없는 순종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행진의 시작은 "[민 10:12]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이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철저히 종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어 '출발하다' <나사>는 '짐을 지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영적인 짐(성막)을 지고 사명 수행을 위한 여정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행진의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명령된 진영의 질서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보여

줍니다.

선봉대: 유다 진 기(유다, 잇사갈, 스불론)가 수두(首頭)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유다(찬양)가 가장 먼저 주님의 길을 열어 영적 전투의 시작을 선언함을 의미합니다.

성막 운반대 1: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양장과 널판을 메고 이동했습니다([민 10:17]).

중앙 진: 르우벤 진 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물 운반대: 고탓인은 증거궤(언약궤)와 지성물을 메고 "[민 10:21]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라는 말씀처럼, 성막의 골격이 세워진 후 가장 나중에 도착하여 성물을 안치하는 가장 거룩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후방대: 에브라임 진 기가 뒤따랐고, 단 진 기가 "[민 10:25]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라고 명시된 것처럼 공동체의 후미와 방어를 책임지며 행진

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행진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임재(언약궤)를 중심으로 각자의 은사(고핫, 게르손, 므라리)와 역할(선봉, 중앙, 후미)에 따라 연합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의 기업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좇아(구름) 우리의 삶의 진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맡겨진 위치(후미든 선봉이든)에서 영적인 짐을 성실히 지는 순종적인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민 10:30]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
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
이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
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모
세가 장인의 아들 호باط에게 동행을 간청하는 중
요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한 뜻은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도 인간의 실제
적인 지혜와 협력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
니다.

모세는 호باط에게 "[민 10:29]여호와께서 우리
에게 주마 하신 곳"으로 간다고 선언하며 여정
의 목적과 약속의 확실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믿음의 확신을 바탕으로 영적인 사명을 이
방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باط은 "[민
10:30]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로 돌아가겠노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불확실
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고향과 친족이라는 세

속적인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민 10:31]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안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호밥의 실질적인 광야 경험을 "우리의 눈"<아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원어 '눈'<아인>은 '통찰력', '지식', '경험'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인간의 지혜와 통찰을 결코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에 대한 지혜를 주어 모세의 짐을 덜어주었던 사건(출 18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나약함을 덮지만, 인간의 협력과 경험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역사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인맥(호밥)도

한 교회의 사명을 돕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세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인 준비와 협력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호박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10: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

[민 10:34]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민 10:35]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민 10:36] 궤가 쉼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의 마지막은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영적 중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언약궤의 역할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여호

와의 언약궤가 삼 일 길에 앞서 행하며 "실 곳을 찾았고"라는 기록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언약의 말씀(궤)이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언약궤' <아론 베리트>는 언약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와 쉴 때마다 각각 다른 기도를 올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응(기도)을 보여줍니다. 궤가 떠날 때의 기도는 "[시 68:1]하나님은 일어나사"의 시편 말씀처럼 대적을 향한 승리를 구하는 전진의 기도였으며, 궤가 쉴 때의 기도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며 임재와 보호를 구하는 안식의 기도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모세의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전진(사역)과 안식(예배)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모범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승리와 보호를 간구하는 뜨거운 전진의 기도를 드려야 하며, 사역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와 회복을 구하는 평안의 기도로 우

리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 장 =====

[민 11:1] 백성이 여호와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와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 11: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민 11:3]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난 후 직면한 첫 번째 영적인 실패를 기록하며, 불순종과 불평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찬양과 순종이어야 했으나, 백성들은 "[민 11:1]악한 말로 원망하매"라는 언약적 거역을 선택했습니다. 원어 '원망하다' <아난>은 단순히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괴롭게 여기고 거역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즉시 진노하시고 "여호와와 불"로 진영의 "끝"<카체>을 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 엄중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진 끝은 대개 잡족이나 서열이 낮은 자들이 거하던 곳이었었는데,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죄의 전염성이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침투해 들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자,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여 불이 꺼지는 공화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멈추어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소의 이름이 '불타다'라는 뜻의 다베라가 된 것은 이 사건이 후대에까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기념비로 남겨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영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즉각적인 회

개와 중보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11:4]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민 11: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 11:6]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민 11:7] 만나는 깻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민 11:8]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찜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민 11:9]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민 11:10]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 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민 11:11]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
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
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민 11: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
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
로 가라 하시나이까

[민 11: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
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
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민 11: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
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민 11: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
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단락은 "섞여 사는 잡족"<아삽수프>이 탐욕<
타아와>을 품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잡족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따라나섰던 이방인 무리
를 의미하며, 이들의 육체적인 정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어 불평을 재발시키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한 고기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만나를 경멸하며 "[민 11:6]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라고 탄식했는데, 이 탄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난과 노예 생활은 잊고 생선과 마늘의 일시적인 쾌락만 미화하여 기억한 것은 영적인 맹목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백성의 탐욕과 불평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극심한 사역의 고통을 주었고, 모세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차라리 죽기를 간청하는 영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지도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며, 공동체의 죄악과 불신앙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말씀)을 경시하는 탐욕의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미화하며 현재의 하나님 은혜의 영역을
편하하는 영적인 타락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또한 지도자의 짐을 함께 나누려는 헌신적인 자
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11: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
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칠십 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
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민 11: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
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
지 아니하리라

[민 11: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
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
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민 11:19]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
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민 11:20]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 개월

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민 11:21]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민 11:22]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 이까

[민 11: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 11: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민 11: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민 11:26] 그 녹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민 11: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민 11:28]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민 11: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불평으로 인해 사역의 짐에 극심하게 지친 모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키는 영적인 권한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 칠십 인을 모아 오게 하였고, "[민 11:25]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분배는 단순한 행정력의 위임을 넘어서 놀라운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루아흐)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도력의 짐이 분산되는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언을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민 11:29]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겸손과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개인적인 명예나 권한 독점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지도자와 달리, 성령의 은혜가 "[행 2:17]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예언된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범위한 은혜의 확장을 소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전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질투하거나 독점하려 하지 말고, 모든 지체가 사역에 동참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역의 짐을 영적인 협력과 성숙함으로 나누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 11:31]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결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민 11:32]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민 11:33]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민 11:34]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민 11:35]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탐욕에 대한 이스라엘의 요청을 응답하시되, 그 응답 속에 엄중한 심판을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땅 위 두 규빗(약 90cm) 높이로 쌓이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육적인 탐욕을 채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 탐욕적으로 모았고, "[민 11:32]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는 비정상적인 양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십 호멜은 엄청난 양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보다 미래의 부족에 대한 염려와 탐욕으로 비축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원어 '탐욕을 낸 자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은 '탐욕'이라는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를 영원히 증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조차 그 동기와 상태가 죄

악되면, 그 응답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 106:15]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음이라"고 탄식하며, 육신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순수한 갈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탐욕인지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순간이 영적인 죽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 장 =====

[민 12: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 12: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층 내부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영적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의 문제를 핑계 삼아 모세를 "방비하는지라" <다바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을 넘어 모세의 공적인 권위를 훼손하려는 공개적인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들의 비판이 모세의 사적인 선택에 대한 질책을 가졌지만, 그 본질적인 의도는 "[민 12:2]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는 물음에서 드러나듯이, 하

나눔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유일무이한 중보 자적 권위를 탐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모세와 동등하게 격상시키려는 영적인 시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과 도전이 기록되기 직전, 성경은 "[민 12:3]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놀라운 인물평을 삽입합니다. 원어 '온유함' <아나브>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한', '고통받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영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방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겸손을 보였습니다. 이 온유함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마 11: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칭하신 것처럼, 참된 지도자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겸손과 복종임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민 12: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 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민 12: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민 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민 12:9]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민 12: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모세의 온유함과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일어난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 질적으로 구분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강력한 질책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의 핵심은 모세의 유일한 중보자적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 12:6]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과는 이상(환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민 12:7]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실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의 관계가 “[민 12:8]내가 대면하여<페 엘 페> 명백히 말하고”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어 ‘대면하여’<페 엘 페>는 ‘입과 입으로’라는 뜻으로,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명확성과 모세의 탁월한 중보자적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

세를 비방한 것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계시의 통로를 거부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구름 기둥이 떠나자마자,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자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부정함이 육체적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눈과 같이 희게 된 것은 심판의 즉각성과 완전성을 보여주며, 거룩한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민 12:11]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민 12:12]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
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민 12:13]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

나눔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 12: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칠일간 부끄러워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칠 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민 12:15]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칠 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 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민 12:16]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에게 심판이 임하자, 아론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민 12:11]슬프다 내 주여"라고 간청했는데,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모세를 비방했던 그가 모세의 권위(내 주여)를 완전히 인정하고 엎드린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문둥병이 어미 태에서 나온 자와 같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완전한 부정함과 산 송장과 같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를 향해 모세는 "[민 12:13]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는 단 두 문장의 가장 짧고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인 중보 사역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참된 지도자는 자신을 해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지만, 미리암을 즉시 고치지 않고 칠 일 동안 진 밖에 가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계와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가장 극심한 수치와 멸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의 기간을 칠 일로 정하셨는데, 이는 정결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그녀의 죄가 완전히 정화되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 12:15]백성은 미리암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치 아니하다가"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죄와 징계의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여정을 멈추게 할 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화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며, 지도층의 영적인 순결
이 공동체의 전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3 장 =====

[민 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3:2]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 13:3] 모세가 여호와와 그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13장의 시작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열두 명의 지도자를 파송하는 명령으로, 이는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믿음과 불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언약적으로 선언하셨으므로, 이 정탐은 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조사가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전략적인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원어 '탐지하게 하다' <투르>는 '정찰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술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족장된 자를 선발하여 보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탐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확인하려 했던 불필요한 시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백성의 불신앙적인 요구가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백성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백성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의 성공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개인의 두려

움을 공동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 사명 수행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 13: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민 13: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민 13:6]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민 13:7] 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민 13:8]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민 13: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민 13: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민 13:11]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민 13: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민 13: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이요

[민 13:14] 납달리 지파에서는 율시의 아들 나비요

[민 13:15]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민 13:16]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민 13:17]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민 13:18]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민 13:19]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민 13:20]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민수기 13장의 이 단락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열두 명의 지도자들의 명단과 모세가 그들에게 부

여한 구체적인 임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 사명을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에게 맡겨 믿음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한 명씩 선발하여 보낸 것은 이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권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민 13:16]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엿더라"는 기록은 영적인 지도력의 계승을 암시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며, 인간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정탐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구속사적 사명임을 모세가 미리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 관찰이라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실체(땅의 풍성함)를 눈으로 확인하고 전투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담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지시했습니다.

땅의 거만: "[민 13:18]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대적의 군사력과 방어 태세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성읍의 구조: "[민 13:19]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파악하여 정복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산성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를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시험받을 가장 큰 물리적인 도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토지의 풍성함: "[민 13:20]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토지의 후박은 땅의 비옥함

을 의미했으며, 실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한 실체임을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는 기록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며, 수확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시기였음을 강조합니다.

이 정탐 사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어진 사명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모세의 지시),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여호수아)께 있음을 고백하고, 약속의 실체(땅의 실과)를 굳게 붙잡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13:21] 이에 그들이 올라 가서 땅을 탐지하
되 신 광아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민 13:22]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
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

가 있었다라

[민 13: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민 13: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민 13:25] 사십 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정탐꾼들은 실제로 40일 동안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 구석구석을 탐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포도 한 송이는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야 했을 정도였는데, 이는 정탐꾼들의 보고 "[민 13:27]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라는 긍정적인 사실을 눈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실과를 가지고 온 것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기업이 얼마나 충만하고 복된 곳인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는 그 땅이 이미 강력한 거민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증거(포도송이)와 현실적인 어려움(아낙 자손)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은 언제나 현실의 견고한 문제와 함께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 현실 앞에서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민 13:26]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민 13:27]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민 13:28]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 13: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민수기 13장의 이 단락은 열두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되, 인간의 믿음이 현실적인 난관 앞에서 시험받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사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민 13:27]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풍성한 실과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실체임을 백성들의 눈앞에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구속사적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땅의 실과를 가져온 것은 미래의 기업(상속)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예고하는 희망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사실 직후, "[민 13:28]그러나"라는 불신앙의 단서가 붙으면서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들

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으로, 고대 근동에서 육체적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등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각자의 거처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위협에 압도당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아낙 자손의 위협을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만들어낸 영적인 왜곡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눈앞의 위협을 통해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으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실과)조차 불신앙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시각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민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 13: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 13: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 13: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두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젖과 꿀)과 인간의 두려움("그러나")이라는 두 개의 상반

된 결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땅의 풍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땅 거민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이라는 외적인 위협에 압도되어 "악평하여"<디바>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했습니다. 원어 '악평하다'<디바>는 '소문을 퍼뜨리다', '중상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부정적인 보고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씨앗을 백성들 마음에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민 13:33]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고백했는데, 이 메뚜기 같은 자화상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영적인 열등감과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 오직 갈렙만이 "[민 13:30]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원어 '능히 이기리라'<야쿨>는 '할 수 있다', '유능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크게 보라는 것이었으나,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위협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초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아낙 자손과의 대면을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의 대결로 해석하며,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직면하는 모든 난관 앞에서 문제의 크기를 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악평의 말을 삼가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는 갈렙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 장 =====

[민 14: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민 14: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 14: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민 14: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광야 여정 중 가장 극심하고 전면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망" <룬>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망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민 14: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고”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닌 살인자로 규정하는 불신앙의 정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민 14:4]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전체를 부정하고 노예의 굴레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영적인 후퇴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었으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보다 익숙한 노예의 굴레를 선택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의 애곡은 출애굽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아 부르짖던 “[출 2:23]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달한지라”는 부르짖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절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들의 행위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유혹으로 해석하며, 영적인 후퇴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미화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

정하는 영적인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믿음의 경계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14:6]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민 14: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 14: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 14:9]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 14: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열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극도의 고

통과 비통함,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져올 재앙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향해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긍정적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즉, "[민 14:8]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권면의 핵심은 "[민 14:9]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낙 자손을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위협보다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시 121:4]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14: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 14: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 14:13]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민 14:14]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 14: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민 14:16]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민 14:17]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민 14:1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 14:19]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민 14: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탄식하시며,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불신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나아츠> 죄

로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멸시'<나아츠>는 '경멸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감정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단순히 간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에 호소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민 14:18]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원어 '인자'<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하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모세의 이 중보는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며 죄인들을 위해 드린 대속적 중보를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에 근거할 때,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14:21]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민 14:22]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 14:23]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 14:24]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 14:25]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민수기 14장의 이 단락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불순종한 세대에 대한 최종적이고 엄숙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확증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민 14:21]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 하노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신학적 무게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 14:22]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죄를 범했습니다. 열 번이라는 횟수는 완전한 불순종과 거역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도 고의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패역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민 14:23]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한 데 있었습니다. 원어 '멸시하는' <나아츠>는 '경멸하다', '모독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행위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모독하는 것과 동일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적 권리 자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준엄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예외를 두셨습니다. "[민 14:24]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믿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온전히 좇았은즉' <말레 아하라이>는 '나를 충만하게 따랐다',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을 가지며, 갈렙의 순종은 인간적인 위협(아낙 자

손)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축복의 선언이 있은 후, 하나님께
서는 백성들에게 "[민 14:25]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는 퇴각 명
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퇴각 명령은 불순종한 세
대에게는 징계의 시작이었지만, 순종하고 믿음
으로 준비된 새 세대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화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
가들은 이 40년의 광야 방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
의 엄격한 공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두 기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
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
신 약속을 불평과 원망으로 멸시하지 않도록 경
계해야 하며,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좇는 믿
음만이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14: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
라사대

[민 14: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 14: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9]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민 14: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록 모세의 중보로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심판은 면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불신앙과 원망을 보인 20세 이상 계수 받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민 14:28]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던 그

불신앙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며, 스스로 저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히 3:19]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며,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고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는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불신앙의 말을 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 14:31]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민 14:32]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민 14:33]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 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 14:35]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4장의 이 단락은 불신앙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한 20세 이상의 책임 있는 세대에게는 결코 언약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실현에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가장 가슴 아픈 역설은 백성들이 "[민 14:3]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라고 말하며 두려워했던 자녀들은 "[민 14:31]내가 인도하여 들

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신앙의 주체였던 그들 자신은 “[민 14:32]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부모의 죄가 자녀들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의 불순종을 넘어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소망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민 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히 계산되고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히 시간적인 방황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영적으로 정화되는 언약적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40년의 역사를 “[히 3:19]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며,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임

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의 기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14:36]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민 14:37]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민 14:38]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嫩的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단락은 심판의 핵심적인 대상인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 즉각적인 징벌이 내려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신속한 실현에 있었습니다. "[민 14:37]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디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라는 말씀처럼, 원어 '악평한<디바>'는 '중상하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다'는 뜻을 가지며, 이들의 죄

는 단순한 비관적인 보고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고 백성의 마음을 녹게 만든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했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신실함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의 세대에 속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믿음의 표본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두 인물의 생존을 심판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다수가 불신앙을 선택할 때라도,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수 정예 영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 14:39]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민 14:40]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

리가 여호와와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 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민 14:41]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와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민 14:42]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민 14:43]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민 14:44]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민 14:45]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단락은 심판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의 뒤늦은 후회와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없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민 14:40]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

대기로 올라가며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행위는 외적인 열심으로는 보였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광야로 돌아가라)을 거역하는 인간적인 자의(自意)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동이 "[민 14:41]여호와와 명령을 범하는 것"이며 "[민 14:42]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징계를 받는 것조차 순종의 행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의 허락과 임재 없이는 인간적인 헌신과 열심은 아무런 영적인 효력이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은 "[민 14:44]여호와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不在) 속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쳐서 호르마까지 패배했습니다. 원어 '호르마' <호르마>는 '멸망', '진멸'을 뜻하며, 이 패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자신들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벗어난 인간적

인 열심과 주제넘은 행동(Presumption)이 오히려 영적인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하실 때 멈추고 돌아가라 명하실 때 돌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5 장 =====

[민 1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5: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민 15: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민 15:4]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한 힌의 사분지 일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민 15: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민 15:6]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한 힌의 삼분지 일을 섞어 예비하고

[민 15:7]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삼분지 일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민 15:8]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민 15:9]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반 힌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민 15:10]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민 15:11]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
하되

[민 15:12] 너희 예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
효에 맞게 하라

[민 15:13]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민 15:14]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
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
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민 15:15]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레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레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민 15:16]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민수기 15장의 이 단락은 광야 방황이라는 심판

의 기간을 넘어서 약속의 땅(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정교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있었을지라도 언약 자체는 폐기되지 않았음을 확증하며,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 15:2]내게 주어져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행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의 방식을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화제, 번제 등)에 소제(고운 가루와 기름)와 전제(포도주)를 첨가물로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소제와 전제의 양은 제물의 종류(어린 양, 수양, 수송아지)에 따라 세밀하게 다르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희생 제사가 생명의 대속을 상징했다면, 소제(곡식)와 전제(포도주)는 땅의 소산물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과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상징했습니다. 원어 '향기롭게'<니호아흐>는 '안정',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 첨가물들은 대속의 은혜 위에 일상의 감사가 더해질 때 비로소 하나

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민 15:14]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민 15:15]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레니... [민 15:16]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이 규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확장은 타국인에 대한 선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전 예배와 헌신의 법도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 15:15]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레니”라는 말 씀처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타국인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법과 규례를 따른다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포하는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교회)를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 3:28]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선포하며, 율법의 정해진 규례에 대한 순종의 의무와 예배의 권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헌신에 있어서 새로운 성도나 이방 배경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한 규례와 한 법도를 따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일관성 있게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 15: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5:18]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민 15: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민 15: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민 15: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 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단락은 광야 여정이 끝난 후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될 새로운 세
대에게 주어진 첫 열매 봉헌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삶과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가
장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말씀은 이 규례의 효력이 광야의 임시적인 생활
이 아닌 영구적인 기업을 얻은 후부터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이
스라엘 백성은 “[민 15:19]여호와께 거제를 드리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어 ‘거제’<테루마>
는 ‘들어 올리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는 곡식 가루 떡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시각적인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민 15:20]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타작 마당의 거제는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봉헌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가장 좋은 첫 열매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롬 11:16]곡식 가루의 처음 익은 것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라는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수확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영적인 원리를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을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었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열매 봉헌은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중 가장 귀한 부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민 15:22]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민 15:23]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민 15:24]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민 15: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민 15:2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민 15:27]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일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민 15:28]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민수기 15장의 이 단락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부지중에(unintentional)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의 성격이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과실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영적인 부정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대속적인 제사를 통해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여"<비슈가가>라는 표현은 '실수로',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는 악의적인 반역(민 15:30의 짐짓 범하는 죄)과는 구별되지만,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레 4:13]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그릇 알고)에 범죄하여"라는 레위기의 속죄제 규례를 반복하며, 죄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나 후회가 아닌, 오직 희생 제물의 피(대속)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원한 원리를 확증합니다.

속죄제의 절차는 죄를 속(贖)하여 정결함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어 '속죄하여'<카파르>는 '덮다', '화해시키다'는 뜻을 가지며, 제

사장이 죄를 속하는 중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 15:28]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정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부지중의 속죄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도치 않은 실수나 과실까지도 덮으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속죄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나 의도를 넘어 영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와 정결함을 구하는 겸손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15:29]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민 15:30]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훼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민 15:31]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민수기 15장의 이 단락은 죄를 짓는 의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두 가지 극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영역(그릇 범한 죄)과 단정코 멸망에 이르는 영역(짐짓 범하는 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있었습니다.

“[민 15:29]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그릇 범죄한 자(부지중의 죄)에게는 본토민이든 타국인이든 동일한 속죄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혈통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은혜로만 해결됨을 가르칩니다. 이 동일한 법의 원리는 “[갈 3:28]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는 "[민 15:30]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훼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원어 '짐짓' <비야드 라마>는 '높은 손으로', '오만한 태도로'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알면서도 경멸하고 모욕하며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영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만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가 없으며, 그 결과는 "[민 15:31]온전히 끊쳐지리라<카라트>"는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과 멸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을 여호와를 훼방하는 행위로 규정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궁극적인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히 10:26]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경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거부하는 배교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엄중한 심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사모하는 오만한 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하나

님의 은혜의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택한다면 영적인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15: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민 15:33]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민 15:34]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민 15: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 15: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의 사건은 앞서 규정된 고의적인 죄악(짐짓 범하는 죄)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이자 심판의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표징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 자신을 훼방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적 장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두었더니"라는 구절은,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정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형벌은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키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율법의 엄중함을 통해 죄의 결과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하며,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

넘하는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15: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5: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민 15:39]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민 15:40]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민 15:41]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의 마지막은 "술"<치치트>과 "청색 끈"을 옷단 귀에 만들어 달라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영적인 규례로 마무리됩니다. 원어 '술'<치치트>은 '튀어나온 부분', '매듭'을 의미하며, 이

는 하나님의 계명을 시각적으로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순종을 유도하신 은혜로운 배려였습니다.

청색 끈은 하늘의 색깔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였습니다. 이 옷단의 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 9:20]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이는 바로 이 '술'<치치트>을 만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눈의 욕심)으로 향하지 않도록 말씀(술)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청색 끈)임을 늘 기억하여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속적인 영적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6 장 =====

[민 16:1] 레위의 증손 고탃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민 16:2]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민 16: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장의 시작은 고라의 주도 하에 영적인 권위(아론의 제사장직)와 세속적인 지도력(모세) 모두에 도전하는 삼중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고탃 자손이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장자였으나 권리를 상실한 르우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악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죄는 제사장직을 탐한 영적인 교만이었고, 르우벤 자손들의 죄는 장자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정치적인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민 16:3]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말하며,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과 질서를 파괴하는 명분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원어 '모여서' <카할>는 '공식적으로 집결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이들의 반역이 개인의 사사로운 불만이 아닌 조직적인 음모였음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음에도 제사장직을 탐냈던 고라의 죄는 "[히 5:4]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부르심 없는 직분을 탐하는 영적인 월권행위의 가장 명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며, 영적인 특권을 탐내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 16: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 16:5]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
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
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
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민 16:6]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
는 향로를 취하고

[민 16:7]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
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
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이 도전을 듣고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이는 모세의 온유함과 인간적인 대
응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중보자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에
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피우라는 시
험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제사
장 직분이 인간적인 투표나 인기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그분의 거

룩함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향로에 불을 피울 수 있었는데, 이는 목숨을 건 심판의 시험이었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민 16:7]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한 자니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섰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향로와 거룩한 불을 만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사역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16:8]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민 16: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민 16:10]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민 16:11]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데도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민수기 16장의 이 단락은 모세가 레위 지파인 고라에게 그의 죄악의 본질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소에 가까이 나아와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대한 특권인지를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민 16:9]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원어 '가까이 하다' <나가쉬>는 '접근하다', '다가가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가장 근접하여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라의 죄는 바로 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민 16:10]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월권적인 탐심에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고라의 도전은 아론 개인에 대한 원망을 넘어 "[민 16:11]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라고 모세가 선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의 경계를 파괴하려는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민 16: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민 16:13]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민 16:14]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

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
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는 다음으로 르우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
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민 16:12]우리는 올
라가지 않겠노라"며 노골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정치적 불만에 근
거를 두었는데,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
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
경에서,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였으나 야곱
의 축복을 상실했기에(창 49:4), 이들의 도전은
모세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려는 계층적 불만의 표출이었습
니다.

그들의 비난의 핵심은 "[민 16:14]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
니하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노예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곡하고, 하나
님의 약속의 땅은 실현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으

로 치부하는 극심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원어 '눈을 빼려느냐' <나카르>는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들은 모세가 현실적인 기업(밭과 포도원) 없이 허황된 꿈만으로 백성을 기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먼 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약속의 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와 자유조차도 속박으로 여기며 불신앙적인 원망을 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16:15]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민 16:16]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민 16:17]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이백오십 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민 16:18]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민 16:19]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이처럼 극심한 비방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렸지만(심히 노하여), 곧바로 여호와께 나아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민 16:15]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은, 자신이 지도자의 권위를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순결함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모세는 고라의 무리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는 최후의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향로는 오직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향로에 불과 향을 피우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중보와 예배의 행위를 상징했는데, 고라와 그 무리가 이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향로 시험은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자의적으로 침범하는 영적인 월권 행위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 16:19]여호와 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은 모세의 깨끗한 지도력을 본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영적인 교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민 16:2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6:21]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민 16:22]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 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 16: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6:24]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
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
라

민수기 16장의 이 단락은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며,
공동체의 분리와 중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의 전염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민 16:21]너희는 이 회중에
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
라"는 명령을 통해 악인과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떠나라'<아짜>와 '멸하
려 하노라'<칼라>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민
16:22]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
시나이까"라고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모세와 아
론의 이 중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과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호소하는 가

장 강력한 탄원이었습니다. 이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온 회중이 아닌 반역의 주동자들에게로 국한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민 16:24]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분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 16: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좃았더라

[민 16:26]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 하매

[민 16:27]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끌고 반역자들의 장막으로 직접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민 16:26]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는 이중적

인 분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의 물리적 근원뿐만 아니라 악인의 재산(물건)조차도 영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장막과 재산은 개인의 정체성과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재산까지 만지지 말라는 경고는 악인과의 관계를 경제적, 물질적 영역에서까지 완전히 단절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분리의 명령은 "[고후 6:17]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죄악과 불신앙으로부터 영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났을 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데리고 나와 자기 장막 문에 섰는데, 이는 자신들의 반역이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공동체의 보호에서 벗어나 심판에 노출되게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타협이 나의 소유와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영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거룩함의 경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16:28]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민 16:29]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
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
니어니와

[민 16:30]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
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권위가 인간적인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온 회중에게 확증했습니다. "[민 16:28]나의 임
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는
선언은 모세의 지도력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파
송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반역에 대한 심판이 평범한 죽음이

아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압도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민 16:30]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어 '새 일'〈브리야〉는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창조 질서를 동원하는 유례가 없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멸시한 죄악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응징하신다는 공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인 교만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죄임을 가르치는 엄중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재앙보다 무섭고 확실한 것임을 깨달아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민 16:31]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

[민 16: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민 16:33]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민 16: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민 16:35]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인을 소멸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땅이 갈라지는 것을 선포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 16:31]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는 초자연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반역은 자연의 질서까지도 뒤엎는 가장 심각한 죄악임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갈라지니라' <바가>는 '찢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으로, 이는 공동체의 영적인 분열에 대한 물리적인 심판이

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하여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민 16:33]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닫혔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질병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창조 질서를 동원하여 반역자들을 멸하셨음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고라와 함께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했던 이백 오십 명의 족장들은 "[민 16:35]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살라 죽었더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직분을 탐내는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전 10:10]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신약의 경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땅이 입을 연 심판을 교회 내의 분열과 이단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비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분쟁과 반역은 가장 큰 영적인 위험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16: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6:37]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민 16:38]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민 16:39]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민 16:40]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단락은 고라 무리의 반역에 대한 심판 직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사용한 도구를 거룩한 기념물로 삼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정화와 재규정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심판의 장소에서조차 당신이 세우신 질서의 거룩함이 영원한 교훈으로 남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게 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 16:38]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는 거룩하게 되었나니"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향로라는 물건 자체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함을 유지했지만, 그 향로를 사용한 사람들의 동기(교만과 탐욕)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원어 '거룩함이니라' <코데쉬>는 '구별된 것', '전용된 것'을 뜻하며, 죄인의 손에 들려졌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

님께 바쳐진 그 물질적 본질은 거룩함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한 놋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놋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도구가 번제단을 싸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은, 심판의 현장이 곧 거룩함의 증거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 16:40]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이 놋 편철 기념물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고라의 반역을 단순히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체를 영구적인 율례와 표징으로 삼아 두 번 다시 권위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 놋 편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의 경계(Boundary)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온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치는 영적

인 표지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 5:4]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직분이 인간적인 야심이나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달려 있음을 확증하는 구약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늦 편철처럼 과거 공동체가 겪었던 심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겸손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를 탐내는 영적인 교만은 가장 헌신된 도구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이 늦 향로의 재 활용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민 16:41]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민 16: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민 16: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민 16: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6: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민 16: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민 16:47]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민 16:48]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민 16: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일만 사천칠백 명이었더라

[민 16:50] 염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튿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놀라운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둔감함과 반역적인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염병으로 다시금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중보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고 명했습니다. 아론은 "[민 16:47]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는 말씀처럼,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자신을 세워 희생적인 중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론이 사용한 향로와 향은 고라의 무리가 죄를 범했던 바로 그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참된 제사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심판을 막는 속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재앙을 막은 이 행위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세워진 영적인 중보자(그

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진
노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중보의 은혜에 감
사하며 영적인 질서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7 장 =====

[민 1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7: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
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에 쓰되

[민 17: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
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민 17: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민 17: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
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
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민수기 17장은 고라 자손의 반역(16장) 이후 아
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최
종적으로 확증하는 신명(神命)적인 증거를 다
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의 "지팡이" <마테>를 가져다가 증

거궤 앞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원어 '지팡이' <마테>는 '지파', '족속', '권위'를 상징하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대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세속적, 부족적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권위의 상징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시고 "[민 17:5]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제사장 직분의 유일한 근거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던 기적과 연결되지만, 이번 기적은 죽은 나무(권위의 상징)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가장 독특한 창조적 기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곧,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를 구원할 참된 생명과 권위는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다른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

간적인 자질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겸손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민 17: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민 17: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민 17: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열두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둔 후, 이튿날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증거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열한 지파의 지팡이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원어 '씩이 나다' <파라

흐>는 '꽃 피우다', '번성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 기적은 생명의 시작(움), 영광(꽃), 그리고 결실(열매)이라는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단 하룻밤 만에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감시한다'는 뜻을 가진 <사케드>와 발음이 유사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깨어 지키고 계심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기적은 아론의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인간의 조직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입증된다는 것을 깨닫고, 권위를 사모하기보다 묵묵히 결실을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 17: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민 17: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 17:11]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 17: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민 17:13]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께서서는 기적을 보인 후,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표징은 더 이상 인간적인 불만과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민 17:12]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라고 탄식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히 10:22]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속적 중재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곧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8 장 =====

[민 18: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민 18:2]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민 18:3]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 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민수기 18장의 서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의 질서가 얼마나 엄격하고 위험한 책임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소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을 분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악"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이라는 가장 큰 죄악의 부담을 졌는데, 이는 가장 거룩한 영역

(지성소, 제단)에 가까이 가는 특권에는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신학적 원리를 확증합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과 장막의 외곽 직무만을 맡았으며, “[민 18:3]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밀한 책임의 분리는 곧 고라의 반역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경한 침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거룩함의 울타리였습니다. 원어 ‘성소의 직무를 지키다’<샤르미쉬메레트>는 ‘파수꾼처럼 경계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뜻하며,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막는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이 직무는 성소의 거룩함을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악의 부담을 모두 담당하시고 “[히 7:24]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월권이 얼마나 위험

한 죄악인지 깨닫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의 경계를 지키며 겸손히 수행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 18:4]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민 18: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민 18:6]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 단락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경험한 직후,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직무와 그 책임의 경계를 재확정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제사장 직분의 절대적인 신성함과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핵심임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 경계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제사장(아론 자손)은 "[민 18:5]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라는 가장 거룩하고 위험한 직무를 맡았으며, 레위인은 "[민 18:4]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맡아 제사장과 합동하여 봉사하되, 외인은 이 거룩한 영역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무를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 18:5]여호와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과 평안을 지키는 영적인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분이 "[민 18:6]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처럼, 인간적인 노력이나 쟁취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원어 '선물로 주어'<

마탄>는 '증여하다',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었으나, 제사장에게 주어져(선물로 주어) 하나님의 회막 일을 돕는 것 자체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어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다양한 직분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각자의 은사와 위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평화와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신약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직분을 탐내는 고라의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달아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의 몫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민 18:10]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민 18:11]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민 18: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민 18: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민 18:14]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민 18:15]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

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함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민 18:16]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일 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온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18:17]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
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
며

[민 18:18]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흐든 가슴
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
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
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
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
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 단락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의 기업<나할

라>을 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제사장 직분의 초월적인 성격을 확증합니다. 원어 '기업'<나할라>는 '상속', '영원한 소유'를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땅의 소유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제사장들이 세상적인 생계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소 봉사에 전념하도록 영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예물"은 화제물,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남은 부분과 곡식, 포도주, 기름의 첫 열매<레쉬트> 등 매우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첫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급을 받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예물들은 제사장의 모든 가족이 진영 내의 정결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의 온 가족에게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민 18:20]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는 선언은 이 장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제사장 직분의 근본적인 영적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 원리는 "[고전 9:13]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신약의 말씀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사역자는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업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임을 고백하며, 영적인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

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단락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는 이유와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신성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이 세속적인 재산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의 십일조를 그들의 영구적인 생계 수단으로 정해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민 18:24]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라는 말씀은 레위인의 생계가 땅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서 나오도록 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십일조는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이 십일조는 단순히 봉사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민 18:21]기업으로 다 주어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니다. 원어 '기업' <나할라>는 '상속', '영원한 소유'를 뜻하며, 이는 레위인의 소득이 인간적인 자선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영구적인 상속임을 의미했습니다.

레위인에게 땅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 18:24]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는 이 선언은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부(富)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막의 봉사에 전적으로 집중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신 10:9]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적인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풍성한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이 세상적인 염려에 얽매이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십일조를 통해 책임감 있게 보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 역시 레위인들처럼 "[시 73:26]하나님이 영원히 내 마음의 분깃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를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가장 귀한 상속으로 여
겨야 할 것입니다.

[민 18: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
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
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 같이 여
기리니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
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
리되

[민 18:29]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
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
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민 18: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

도짐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민 18:31]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민 18: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레위인들 역시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으나, 그들은 성막 봉사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십일조<마아세르>를 기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이 성소 봉사에 전념하도록 공동체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직무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일조의 십분지 일"<테루마트 하마아세르> 규정입니다. 레위인들은 수혜자인 동시에 헌신자로서, 자신이 받은 십일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테루마>로 구별하여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들

도 예외 없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거제' <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는 뜻으로, 레위인들의 헌신 역시 일반 백성의 헌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높이 드려지는 영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규정은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언약적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민 18:32]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선언은 헌신과 구별의 삶만이 죄악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인 원칙(십일조)을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히 실천하여 하나님 중

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일조는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헌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기 싫으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는 상한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헛된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올 헌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원하며 드리는 헌물의 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축복과 연관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하여 정하신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때문에 그렇게 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이 없어도 전혀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필요해서 거둬드리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기 싫습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심은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생각하십시오. 그것마저 믿지 못하시겠거들랑 신경쓰지 마십시오. 심은대로 거두는 것도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 내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의 경우엔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격했습니다. 십일조는 힘든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윗 구절에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지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우리의 가진 물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떠한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눈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이 십일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십일조와 헌물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십일조를 거두어서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 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거둬들인 십일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는 풍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의 거한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지파로부터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읍조차도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읍이 없어지면 거할 처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둬드린 십일조를 모두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십일조를 내게 하신 것은 십일조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물질은 저들의 소득의 1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십오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십일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갓다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갓다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었으며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하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헌금은 십오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해질 때에 어김없이 외세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9 장 =====

[민 19: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
라사대

[민 19:2] 여호와와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
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
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 오게 하고

[민 19: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 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민 19:4]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민 19: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
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민 19: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민 19:7]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
리라

[민 19:8]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

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민 19:10]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민수기 19장의 이 단락은 시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不淨)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재(灰)를 만들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Red Heifer)에 대한 독특하고 영원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여 일상적인 속죄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부정함이 있음을 가르치고, 완전한 정결함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민 19:2]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이라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제물의 순수성을 의미했고,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은 노동에 사용되지 않은 처녀 제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붉은' <아돔> 색깔은 피와 죄를 상징하는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며,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피의 대속이 필수적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제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 행해지는 장소와 방식의 역설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민 19:3]진 밖으로 끌어 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라는 명령은 이 제사가 성막 제사와는 분리된 특수한 성격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진 밖은 죄와 부정함의 영역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려 정결 의식을 수행했지만, 정작 그는 "[민 19:7]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나 그 재를 거둔 자 역시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죄를 정결케 하는 행위가 죄의 부정함을 전가받

는 역설적인 속성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민 19:9]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는 최종 선언은 이 재가 시체 접촉과 같은 지속적인 부정함을 씻는 영원한 정결수(정결케 하는 물)의 재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듯이 “[히 9:13-14]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밖(골고다)에서 죄와 죽음의 부정함을 짊어 지시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궁극적인 희생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만이 죽음과 죄의 깊은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결케 하는 물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 19: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칠 일을 부정하리니

[민 19:12] 그는 제삼일과 제칠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삼일과 제칠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민 19: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이 단락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잿물)을 시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씻는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칠 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죽음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재물)가 담긴 물을 제 삼일과 제 칠일이라는 완벽한 치유의 시간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밀한 시간 규정은 정결케 됨이 인간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 삼일에 정결케 되는 원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음을 예표합니다. 죽음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민 19:13]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막을 더럽힘이라"는 경고는, 죄와 죽음의 부정함을 안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막(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임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짓는 작고 피할 수 없는 죄들(죽음의 오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젖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민 19: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칠 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민 19:15]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민 19:1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민 19:17]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민 19:18]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민 19:19] 그 정한 자가 제삼일과 제칠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칠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민 19: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민 19:21]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레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민 19:22]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
정하리라

이 단락은 시체로 인한 부정함이 어떻게 광범위
하게 확산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람이 죽은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뿐만 아
니라, 뚜껑을 열어 놓은 그릇과 세탁하지 않은
모든 그릇까지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규정은 죽음과 죄
의 전염성이 마치 전염병처럼 접촉과 공간을 통
해 얼마나 쉽게 확산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
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오염시키며, 영적인 경
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
습니다.

이처럼 부정함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
게 된다는 원리는 "[롬 5:12]이러므로 한 사람으
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

아 사망이 왔나니”라는 말씀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부정함에 오염되었다는 신학적 원죄론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율법의 이러한 엄격한 정결 규례를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그릇)을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접촉으로부터 철저히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 장 =====

[민 20:1]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 장사하니라

[민 20: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민 20: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민 20: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민 20: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 20:6]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민수기 20장은 "정월에"라는 시간적 배경과 함

께 미리암의 죽음을 간결하게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미리암은 출애굽의 세 주요 지도자(모세, 아론, 미리암) 중 한 명이었으며, 모세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그를 지켰고,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예언자적 여성 지도자였습니다(출 15장). 그녀의 죽음은 광야 세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이미 14장에서의 심판 이후 40년의 시간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었고, 이 죽음은 옛 세대의 그림자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역시 신 광야 가데스에서 다시 "물이 없음"을 이유로 모세와 다투며 불신앙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민 20:3]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절규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저주와 심판의 행위로 규정하는 극심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당장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원어 '다투니'(<리브>는 '법정에서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넘어 모세의 지도력을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고소하는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까지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불신앙의 습관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 20: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0: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민 20:9]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민 20:11]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의 다툼에 직면하여 모세와 아론은 회막 문에 앞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다바르 엘 하셀라> 물을 내게 하라”였습니다. 이 명령은 말씀을 통한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믿음(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목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 20:10]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는 ① 백성을 향한 격분, ② 기적을 행하는 주체에 ‘우리’를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혹은 오염시키려는) 교만의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을 내었습니다. 원어 ‘치매’<하카>는 ‘때리다’, ‘치다’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명령(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전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던 사건(출 17장)은 하나님의 징계(채찍)를 상징하는 것이었으

나, 신학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전 10:4]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는데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했듯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단 한 번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불완전하여 두 번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구속사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분노와 감정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 20: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엄중하고

치명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였습니다. 모세의 죄는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격분한 감정과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마치 지도자의 분노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원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로 키다쉬템 오타>은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기에, 지도자인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숭고하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가 인간적인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개인의 경력이나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므리바 사건을

해석하며, 죄의 문제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완전한 중보자만이 백성을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으로, 백성의 다툼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 20: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민 20:15]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민 20:16]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민 20:17]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민 20: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민 20:19]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민 20:20]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민 20: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인 "왕의 대로"를 지나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창 36장),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서신에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혈

연적 유대와 광야의 고난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철저히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평화적인 통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이 강압적인 힘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으며, 특히 형제 민족에게는 긍휼과 존중을 보이도록 명하셨습니다(신 2:4-5).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민 20:20]내가 칼을 가지고 나가 너를 대적하리라"고 형제에게 무력으로 위협하는 불신앙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에돔의 적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여정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의 한 형태였으며, 훗날 예언서에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욥 1:10-14).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까운 관계(형제)로부터 영적인 여정을 방해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회로(순종)를 따르는 영적인 지혜와 인내가 필요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 20: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

에서 진행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민 20: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민 20:24]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민 20:25]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민 20: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민 20:27]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민 20: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민 20:29]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0장의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과 제사장

직분의 승계라는 매우 장엄하고 질서 정연한 의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론은 므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격하고 최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죽음은 고라의 무리처럼 땅에 삼켜지거나 불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호르산 위에서 맞이한 질서 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 심판의 공의를 실현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보존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아론의 의복은 제사장 직분의 권위와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행위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직분과 언약은 불변하며 영원히 계승된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계시였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대제사장직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권위의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히 7:23]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
이로되 [히 7:24]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
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죽
음으로 인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제사
장 직분과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중보를 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대조시
키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역은 신실하게 계
속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계승과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며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1 장 =====

[민 21:1]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민 21: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민 2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수기 21장의 시작은 광야 세대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은 후의 새로운 세대가 거둔 첫 번째 군사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을 받고 몇 명의 포로를 내어주는 고통을 겪었으나, 이들은 과거 세대처럼 원망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서원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언약의 말씀과 신앙적인 서원을 통해 이

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원한 후 승리하자, 그들은 대적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호르마>라 불렀는데, 이 원어 '호르마'<호르마>는 '완전히 멸절함', '봉헌함'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발적인 서원과 순종을 통해 얻은 이 승리는 "[잠 21:31]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서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친히 맡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의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불신앙적인 원망에 빠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여정 속에서도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민 21:4]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는 기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불평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어 '마음이 상하니라' <카차르 네페쉬>는 '영혼이 짧아지다', '참

을성이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고난으로 인해 인 내심을 잃고 영적인 좌절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좌절은 "[민 21:5]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 망하되"라는 극단적인 언약적 거역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 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만나(박한 식물)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말하며 경멸했습니다. 원어 '싫어하노라'<콰츠>는 '경멸하다', '억겨워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심각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패역한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민 21:6]불뱀 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라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은 '불타는 듯한' 또는 '독이 맹렬한' 뱀을 의미하며, 이는 백성들의 마음속의 불평(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같은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고전 10:9]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신약의 경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고 시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현재 주신 은혜(박한 식물인 만나)를 경멸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는 심각한 죄악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나아와 "우리가...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희생 제물이나 복잡한 의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쳐다본즉' <나바트>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간절히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눈에 보이는 구원의 표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을 의미했습니다.

이 뱀 사건은 구속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 3:14]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뱀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뱀은 심판을 상징하고, 뱀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의 모양을 가졌으나 죄가 없는 그

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신학적 진리가 이 뱀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뱀에게 물린 고통)를 느낄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뱀)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민 21:10]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 쳤고

[민 21:11]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 쳤고

[민 21:12]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 쳤고

[민 21:13]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민 21:14]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민 21:15]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민 21: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민 21: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민 21:18]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민 21: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민 21:20]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민수기 21장의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심판 이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 근처로 진격해 가는 지리적 행진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징계를 받은 백성에게 길을 막지 않으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

도하시며, 순종의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잊지 않고 베푸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오봇에서 시작하여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등을 거쳐 아르논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이는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길고 복잡한 행진 경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결코 쉽거나 곧은 길이 아니었으며, 세밀한 지도력과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영적인 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민 21:14]여호와와의 전쟁기"라는 고대의 문헌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기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길고 지난한 행진 과정 중에 "[민 21:16]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는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특

히 "[민 21:17]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는 자발적인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불뱀 사건 이후의 원망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회개 후의 순종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민 21:18]이 우물은 족장들이 뚫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라는 기록은 신학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족장들과 귀인들은 홀(권위)과 지팡이(노력)를 사용하여 실제 우물을 파는 인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성실한 순종과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 우물은 "[요 4:14]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됨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맛다

나, 나할리엘, 바뭇을 거쳐 모압 들의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나아갔는데, 이는 모든 광야 여정의 영적인 목표인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최종적인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약속(물)을 믿고 성실한 노력(우물을 팜)을 기울일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얻고 궁극적인 약속의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민 21: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민 21:22]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민 21:23] 시혼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민 21: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

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
하더라

[민 21:25]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
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민 21: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
이라 시혼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
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민수기 21장의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모리 왕 시혼
을 상대로 첫 번째 대규모 정복 전쟁을 벌여 완
벽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순종적인 행
진에 대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미리 실현해 주
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민
21:22]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라는 평화적
이고 정당한 통행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

서도 예의와 질서를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나옴으로써 전쟁의 명분을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시혼의 교만은 이스라엘의 순종적인 자세를 약점으로 오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민 21:24]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땅과 도성(헤스본)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원어 ‘쳐서 파하고’ <나카>는 ‘치다’, ‘물리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군사력을 통해 실제적인 승리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광야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 21:27]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민 21:28] 헤스본의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민 21:29]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민 21:30]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민 21: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이 단락은 시혼의 정복 전쟁을 노래한 시인의 노래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전쟁 노래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영원히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시혼이 모압을 쳤을 때 불렀던 것일 수 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시혼을 쳤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전이되

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선포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시혼의 도성 헤스본에서 나온 불과 화염이 모압의 아르와 아르논의 주인을 삼켰다는 멸망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 21:29]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라는 구절은 모압의 신(그모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선언하는 신학적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세상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거짓된 신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확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 21:32] 모세가 또 보내어 야셀을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민 21:33]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민 21: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민 21:35] 이에 그와 그 아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시혼 왕을 이긴 후, 아셀의 촌락을 정복하고, 이어서 바산 왕 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당시 거인 족속의 잔존 세력 이거나 위협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기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 앞서 "[민 21:34]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라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동편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의 서곡으로서,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승리였습니다.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

니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승리의 패턴이 모든 대
적에게 일관되게 적용될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민 21:35]이에 그와 그 아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
였더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
실함과 이스라엘의 완벽한 순종이 결합될 때 얻
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의 승리(시
혼)를 현재의 두려움(옥)을 이겨내는 믿음의 근
거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
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자세
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2 장 =====

[민 22: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민 22: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민 22: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민 22: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라

[민 22: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 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얌이니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수와 군사력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찾아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락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좌절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의 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선지자의 저주와 축복은 실제적인 영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믿어졌습니다. 발락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얌이니라"고 말한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인 권위

를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사단이 직접적인 무력 대신 영적인 공격과 미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했던 영적 전쟁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에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공격(저주)에 대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 22: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
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민 22: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
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
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
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

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민 22: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
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
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
하시느니라

[민 22: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
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
이다

[민 22: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
들을 더 많이 보내매

[민 22: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민 22: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
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
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
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
지 알아 보리라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
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
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니라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락이 보낸 사자들은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
에게 이르렀습니다. 원어 '복채'<케셈>는 '점술의
대가', '보상'을 뜻하며, 발람은 이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영적인 시험에 들었습니다. 발람은 이미
"[민 22:12]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을 받은 자니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
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
물을 보내겠다는 발락의 두 번째 제안 앞에서 흔
들렸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민 22:18]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못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밤새 하나님께 재차 허락을 구하는 영적인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발람이 탐욕 때문에 억지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허락은 긍정적인 승인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벧 후 2:15]불의의 샅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며 탐욕으로 인해 길을 잃은 선지자의 전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안 내용에 대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려는 영적인 타협과 탐욕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영적인 은사를 개인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 22: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민 22:23]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발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민 22:24]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민 22:25]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민 22:26]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민 22:27]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지라

[민 22: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민 22: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민 22: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
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민 22:31]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
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탐욕으로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
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심판
의 장면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요소는
바로 나귀의 역할입니다. 원어 '나귀' <아톤>는 짐
을 나르는 하찮은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 나귀는
탐욕에 눈먼 선지자가 보지 못한 영적인 실체(칼
을 든 사자)를 세 번이나 먼저 보고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말 못 하는 짐승의 입을
여시어 인간의 탐욕과 영적인 맹목성을 질책하
시는 데 있었습니다.

발람은 나귀의 이상 행동에 대해 격분하여 세 번
이나 채찍질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야 할 영적
인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

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며, 물질적인 욕망이 영적인 눈을 얼마나 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삼았습니다. 발람은 "[벧후 2:16]저희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금함이 가졌으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나귀를 통해 미친 행동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를 주변의 환경(나귀의 이상 행동)을 통해 미리 깨닫지 못하고 고집과 탐욕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칼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 22:32]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민 22: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
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민 22:35]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
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 단락은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발람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의 패역한 길을 책망하고 궁극적인
허락과 제한을 통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세상의 물질적인 탐심에 눈이 먼 선
지자(발람)의 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으시
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강
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민 22:32]네 길이 내 앞에 패
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라고 선
언하며 발람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
(패역)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어 '패역하
므로' <아라드>는 '뒤집히다', '거스르다'는 뜻을
가지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발

람의 악한 의도를 지적합니다. 나귀가 세 번 피한 행위는 "[민 22:33]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는 선언처럼, 발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귀는 세상의 이익에 눈이 먼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발람은 비로소 여호와와의 사자를 보고 "[민 22:34]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뒤늦게 고백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 모면을 위한 외형적인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람의 불완전한 회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민 22:35]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는 엄격한 조건부 명령은 발람의 의지와 사역의 내용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음을 확증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발람의 허락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탐심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섭리로 해석했습니

다.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패역한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나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경고를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민 22:36] 발락이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민 22:37]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민 22: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민 22:39]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트후삿에 이르러서는

[민 22:40]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민 22:41]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

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은 여호와와 사자의 경고를 받고도 결국 발락에게 나아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최대한 높이 존귀케 하겠다고 약속하며 물질적인 보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민 22:38]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따름이니이다"라고 영적인 순종을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적인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보게 했습니다. 이는 가장 우상숭배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완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진과 이방 신의 산당의 대비는 빛과 어둠의 대결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해야지, 물질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죄악된 세력과 타협하는 발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 장 =====

[민 23: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매

[민 23:2]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
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를 드리니라

[민 23:3]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
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민 23:4]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
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
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민 23: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라

[민 23:6]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민 23:7]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

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
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민 23:8]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
찌 꾸짖을꼬

민수기 23장은 모압 왕 발락이 "불의의 샅을 사
랑하는"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
주하려던 시도와,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주권
적인 축복 앞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발락의 명령에 따라 일곱 개의 단을 쌓고
일곱 마리의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는 극도의
공력과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
엘의 문화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숫자
일곱은 완전함과 신성함을 상징했으며, 발람은
이 완벽한 제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탐
욕적인 목적에 맞게 조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러한 발람의 행위는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으로
는 부패한 영적인 타협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의 첫 번째 "노래"<마살>를 지

어 선포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발락이 원했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탐욕에 눈이 먼 선지자의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핵심 고백은 "[민 23:8]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인간의 어떤 저주, 마술, 또는 제의적인 공력으로도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단이 아무리 힘을 모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자(교회)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롬 8:33]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신약의 확신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민 23:9]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민 23:10]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

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첫 번째 신탁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과 그들이 받을 미래의 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민 23:9]홀로 거할 것이라<바다드 샤칸>"고 예언했는데, 이 원어 '홀로 거할 것이라'<바다드 샤칸>는 '분리되어 거주한다', '구별된 백성으로 홀로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세속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발람은 "[민 23:10]아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꼬"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셀 수 없는 번성을 예언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 13:16]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라는 창조 언약의 성취를 발람 스스로 확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발람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고 소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축복된 미래를 이성적으로는 깨달았으나, 여전히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그 의인의 길을 인격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데, 발람은 그 생명을 갈망하면서도 현재의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죄성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따르려는 발람과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히 경계하고, 의인의 종말을 위해 현재의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 23:11]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민 23:12]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이까

민수기 23장의 이 단락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축복 선포(두 번째 예언)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해 발람이 자신의 주권적인 한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보상에 눈먼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조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강력하게 확증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발락의 항의는 "[민 23:11]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라는 분노와 배신감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돈과 권력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의도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발락의 세속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발람의 대답은 "[민 23:12]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이까’라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냉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원어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로 오마르>는 ‘말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발람이 개인적으로는 발락의 보상(저주)을 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그의 입에 주어지면 자신의 의지와 탐심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의도나 그릇된 통로(발람)를 통해서도 결코 왜곡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의 능력과 주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임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입이 발람처럼 세속적인 이익을 따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순결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 23:13]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민 23:14]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민 23:15]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민 23:16]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민 23:17]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민 23:18]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 23:20]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았으니" 저주가 불가능했다고 착각하며, 발람을 소빔(망대) 곧 비스가 산꼭대기로 옮겨갔습니다. 발락의 이러한 행동은 미신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소를 바꾸거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다시 발락의 명대로 동일한 일곱 제단과 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 두 번째 신탁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신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신실하심(Immutability)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민 23:19]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구절은 민수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리입니다. 원어 '인생'<이쉬>은 '약한 인간', '변덕스러운 존재'를 뜻하며, 원어 '식언치 않으시고'<로 예카제브>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시기에, 한 번 말씀하신 약속(축복)은 결코 거짓되거나 후회하여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 변개치 않는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 6:17-18]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에 있습니다.

[민 23:21] 여호와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데도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 23:22]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민 23:23]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두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민 23:21]야곱의 허

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이스라엘의 불완전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덮으신 죄(허물과 패역)를 세상의 어떤 저주도 다시 끄집어내어 비난할 수 없다는 언약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또한 “[민 23:22]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르엠>”라는 예언은 원어 ‘들소’<르엠>가 상징하는 통제 불가능하고 꺾을 수 없는 야생의 힘(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선포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발람은 “[민 23:23]야곱을 해할 술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원어 ‘술법’<나하쉬>은 ‘징조를 살피는 점술’을, ‘복술’<케셈>은 ‘주문을 외우는 마술’을 뜻하는데, 발람이 바로 그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 완전히 무효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성되었으며, 어떤 악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불안이나 저주의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민 23:23]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민 23:24]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민 23:25]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 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민 23:26]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민 23:27]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민수기 23장의 이 단락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축복)에 대한 모압 왕 발락의 격렬한 반응과 발

락이 세 번째 시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축복을 인간의 어떤 의도나 장소의 변화로도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극적으로 증명하시는데 있었습니다.

발람은 그의 두 번째 예언을 "[민 23:24]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맹렬한 승리의 비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암사자와 수사자는 구약에서 힘과 용맹,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전은 이스라엘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승리(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는 행위)를 쟁취하기 전에는 절대 안식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범한 유목민이 아닌, 정복을 위한 강력하고 거룩한 군대로 보셨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 확증한 것입니다.

발람의 좌절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 23:25]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발람

의 명령은 발람의 예언이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이며 통제 불가능함을 인정한 절망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람은 "[민 23:26]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용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며, 자신의 탐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할 수 없음을 냉정하게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어 '하지 않을 수 없다' <로 야칼>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 앞에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발락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민 23:27]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말하며 장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 신앙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민 23:28]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라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브올 산은 이스라엘 진

영을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자, 후에 이스라엘이 음행 죄를 저지르게 되는 영적인 시험의 장소였습니다(민 25장).

발락의 세 번의 시도는 인간의 끈질긴 악한 의지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세속적인 좌절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발람처럼 상황과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23:28]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민 23:29]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민 23:30]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민수기 23장의 이 단락은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세 번째 제의(祭儀)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인간의 끈질긴 악한 의지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세 번째 시도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하시는데 있었습니다.

발락은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 23:28]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했습니다. 브올 산은 이스라엘 진영이 가장 잘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으나, 장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미신적인 장소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다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어떤 지리적 요인이나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데 있었습니다.

발람은 다시 "[민 23:29]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라고 요청했고, 발락은 "[민 23:30]발람의 말대로 행하

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수송아지와 수양은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발람은 형식적인 면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 시도한 것입니다.

발람의 세 번의 제사 행위는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으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갖춘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려고 오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끈질긴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일곱 제단, 일곱 제물)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탐욕을 버리는 회개)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정성이나 화려한 의식으로 조종되거나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순종과 믿음의 중심만을 요구하신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민수기 24 장 =====

[민 24:1]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민 24: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 24:3]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민 24:5]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 번째 시도를 위해 발람은 발락과 함께 브올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전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발람은 비로소 자신의 술법<케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 24:1]술법을 쓰려고<리크라트 누하심> 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향했습니다. 원어 '술법을 쓰려고'<리크라트 누하심>은 '징조를 찾다,'

마술을 행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발람이 더 이상 자신의 세속적인 영적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탐욕에 물든 선지자의 입을 강제로 열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데 있었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장막에 거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신<루아흐 엘로힘>이 그 위에 임하시니" 그는 세 번째 신탁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질서정연하게 장막에 거하는 모습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언약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상징했으며, 발람은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민 24:5]너의 장막이여 이스라엘이여 네 거하는 곳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였습니다. 이 찬양은 발람이 보기를 원했던 저주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거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며, 그 아름다움은 "[엡 2:22]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가 된 성도들의 거룩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축복이며 세상이 감히 저주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근거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24:6] 그 벌어진짐이 골짜기 같고 강 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민 24:7]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민 24: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민 24:9] 끓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성과

군사적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민 24:6]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묘사되는데, 이는 근동 지역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물을 가까이 하여 풍성하게 번성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민 24:7]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이드루 미마이모>"라는 구절은 원어 '넘치겠고<이드루>'가 '뚝뚝 떨어지다', '흘러넘치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 이스라엘의 복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민 24:7]아각보다 높으리니"라고 예언했는데, 아각은 당시 강력했던 아말렉의 왕명이거나 미래의 모든 적대적인 왕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왕)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우월하고 승리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한 "[민 24:9]끓어오르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최고의 힘과 안전을 상징하며, 야곱의 축복(창 49:9)을 그대로 재확인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민 24:9]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는 아브라함 언약 (창 12:3)의 성취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자와 같은 왕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분의 왕권 아래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민 24:10]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민 24:11]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민 24:12]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민 24:13]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민 24:14]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
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
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발람의 세 번에 걸친 축복에 모압 왕 발락은 분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을 해고했습니다. 발락
의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권력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발람이 "여호
와께서 그대를 막아 복이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의 개인적인 불운 때
문에 일이 실패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민 24:13]여호와와의 말씀을 거
스려... 내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라고 말하며 순
종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미 발락의 은금을 얻
기 위해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시도
했던 그의 탐욕적인 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신탁
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며, "이 백성(이스라엘)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모압)에게 어떻게 행할 것
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하
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람의 탐욕스러운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와 메시아의 도래라는 가장 깊은 구속사적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신탁은 발람이 발락에게 아첨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 선포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승리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술도 사용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탐욕에 찬 자의 이득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24:15]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민 24: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탁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민 24:16]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마하제>을 보는 자"로 묘사하며, 이 예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원어 '이상'<마하제>는 '환상', '계시적인 광경'이라는 뜻으로, 이는 발람이 미래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신탁의 핵심은 "[민 24:17]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입니다.

한 별<코카브>: 별은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표징입니다. 원어 '별'<코카브>은 '광명', '왕권의 상징'을 뜻하며,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예표합니다. 이 별은 "[마 2:2]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베들레헴의 별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한 홀<쉐베트>: 홀은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며, 원어 '홀'<쉐베트>는 '지휘봉', '지팡이'를 뜻합니다. 이는 다윗 왕에게서 일차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별과 홀은 일어나서 모압을 치고, 에돔을 멸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발람은 바로 자신을 고용한 발락의 민족(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왕권이 이 야곱에게서 나온 별(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 예언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민 24:18]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민 24: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수기 24장의 이 단락은 발람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의 일부로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와 미래의 왕(주권자)에 대한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단순한 광야의 생존을 넘어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한 왕권을 소유하는 데 있음을 가장 장엄한 비전으로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 24:18]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라는 예언은 이스라엘의 대적 중 가장 오랜 원수였던 에돔과 세일(에돔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선포합니다. 원어 '산업이 되며'<아라쉬>는 '상속받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넘어 대적의 땅까지도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소유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대적의 힘을 이스라엘의 자원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성공과 함께 이스라엘은 “[민 24:18]용감히 행동하리로

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발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 24:19]주권자가 아굽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주권자’<아르데>는 ‘다스릴 자’, ‘지배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이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왕이 아니라 궁극적인 통치자(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다윗의 왕조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구약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아굽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대적들(그 성읍)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절시키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발락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상을 통치할 영원한 주권자를 배출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는데 있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인간의 어떤 악한 의도나 세상의 위협으로도 결코 취

소될 수 없음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대적(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음을 기억하며, 용감히 행동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24: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 24:21]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민 24:22]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민 24:23]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민 24:24] 갓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민 24: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마지막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네 편의 단편적인 심판 예언을 선포하며 자신의 예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말렉: "[민 24:20]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대적했던 민족(출 17장)이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겐 족속: "[민 24:21]네 거처가 견고하나... 멸망하리로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삿 1:16)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으나, 발람은 이들도 결국 포로로 잡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며,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별되어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앗수르와 에벨: "[민 24:24]깃딤 해변에서 배가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깃딤은 서방의 강대국

(주로 헬라나 로마)을, 앗수르는 동방의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며,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원어 '에벨'<에베르>는 '강 저편의 백성'(히브리인)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 이스라엘 자체도 징계와 고통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민 24:25]발람이 일어나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는 문구는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축복의 말씀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발람은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했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떠났으며, 훗날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길을 가르쳐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민 31:1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도, 개인의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타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축복만을 우

리의 참된 기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의 죄악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꿈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그렇기에 모압평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있는 때에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힘을 기울였습니다. 마귀는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계획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 모압왕과 미디안왕들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이라는 염병에 걸리고 말았으며 그 일로 인해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염병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

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은 '음란' 염병이었습니다.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어와 교묘하게 음란병을 옮긴 것입니다.

"[민 25:1]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 25: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민 25: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은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브올'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알신은 생산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바알신을 섬길 때 난잡한 혼음(groupsex)을 행했으며 사람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바알송배자와 바알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바알신 제사의 절정에 달하는 제사방식이었으며 바알송배자는 반드시 그런 추잡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발람의 잔꾀대로 이스라엘 백성

을 모압땅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바알송배 여인들간에 행음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행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3절)고 언급하였습니다. '부속되다'는 히브리어 <이차메드>단어는 '예속시키다' 또는 '멍에를 지우다'라는 뜻으로 떼레야 떼 수 없는 완전히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모압 여인들에게 녹아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에 음행이 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해당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명하여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민 25: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민 25:5]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몬지파가 가장 많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었는데 시몬지파의 인구가 이 일로 거의 3,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시몬지파의 수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민 26:14]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바알브올 음행사건에 연루된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미디안 다섯 왕의 한 사람인 수르의 딸 '고스비'와 음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창으로 저들의 배를 찌고 한꺼번에 둘을 죽임으로 모든 염병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민 25: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모압평지에서 일어났던 음행으로 인한 염병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알숭배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비록 이 음행염병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미 바알 우상에 대한 추악한 음행의 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재앙

모압평지의 염병 사건은 발람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사람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재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고 두고 큰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치명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갔습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적인 정욕에 빠지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고통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잘못을 할 때 그 죄 값은 온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할 때에 그 죄 값은 자손 삼 사대에 이르기까지 죄 값이 이어집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발람, 그는 누구인가?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올에 살고 있었던 복술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 22: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

기어 이 땅에서 몰아 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
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
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부르기 위해 미디안
장로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모압과 브
올까지의 거리는 대략 6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
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렇게 먼 거리에 사는 발람을
급히 불러오게 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심정이 두렵
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왕의 두려움의 실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
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람
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모압 고원지대에서 눈을 들어 보면 모압평지에 진
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발람을 불러와
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술가가 복을 비지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
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
다. 실제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복술가에게는 사람
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것은 비단 복술가에게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
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두 이뤄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러한 말이 쓰여

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집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통적으로 복술가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술가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복술가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만 세상적인 복술가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술가는 마귀의 힘을 빌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술가가 어떠한 초능력적인 힘을 빌어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복술가의 능력은 모두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복술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이전에 하나님

을 믿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이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발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복술가에게조차 음성을 들려주셔서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처음 발람에게 장로들이 찾아 왔을 때 발람은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듣고 있으며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민 22: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모든 복술가들이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복술가들이 점을 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주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도 자신의 신과 접촉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 서도 항상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

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게 들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화를 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압왕 발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의 말을 듣는 발락왕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발람은 화를 내는 발락에게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것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민 23:13)고 강력하게 말하셨습니다.

발람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 24:5]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 24:6] 그 벌어진 골짜기 같고 강 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그의 심원한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민 24:7]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민 24: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민 24:9] 끓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또한 발람은 단순한 영적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의 나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민 24:15]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

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옆
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민 24:17] 내가 그
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
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
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 24:18]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
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
다 [민 24: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
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 24: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
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 24:21]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
위에 있도다 [민 24:22]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
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민
24:23]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민
24:24] 갓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
다 하고 [민 24: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
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의 대언한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으며 들은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람의 신하들에게 "발람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절)고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화를 내는 모압 왕 발람 앞에서도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람이 장로들을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두번째 모압왕 발락이 장로들과 더 높은 귀족들을 다시금 보냈을 때에도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기에 곧장 발람은 길을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민 22: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압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고 가로서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 값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이면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

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 복술가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에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민 24:1]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낮을 광야로 향하여 [민 24: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 24:3]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도 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또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성령의 감동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없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 비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는 환상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이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저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지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가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비록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은 항상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도 발람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발람

하지만 발람에게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찾아 왔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두번째로 높은 귀족들을 다 시금 발람에게 보냈을 때 발람의 마음에 약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재리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

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비록 발람은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한번 하나님께 모압 땅에 갈 것인지를 여쭙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장로들이 왔을 때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이 매우 꼼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번 듣고서 곧 바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비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음성들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발람의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 것은 매우 심사숙고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심령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있게 묵상할 때 발람의 숨어있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은 처음 들었던 음성과는 사뭇 다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왕 발람의 유혹이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발람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재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가리켜 "선입견 음성"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이 들어간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정욕이 묻어져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러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고 가족끼리 모처럼 야유회를 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제안을 뿌리치기엔 너무 매몰찬 부모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성령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성령하나님께 여쭙 때 어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라...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은 선입견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속에 세상의 정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경우도 선입견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늘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욕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는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입견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선입견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매사에 정욕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자기비하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깨끗하게 살아야만 선입견이 없는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변경의 끝인 아르논 근처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마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복술가를 이처럼 대우했을 때는 발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발람이 모압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꾀를 제공하게 된 것도 모압왕의 지극정성어린 환대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모압왕은 발람을 만났을 때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면서 "그대야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람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큰 명예가 주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왕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는 발람처럼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는 발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람의 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벧후 2: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

랑하다가 [벧후 2: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다음과 같이 발람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유 1: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

만 교회의 일어난 문제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성도로 인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사자가 있는 교회는 능력도 강력한 반면에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성령사역하는 교회를 비교할 때 성령사역 교회의 교인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교인수가 늘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내에 발람과 같은 능력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며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을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 복술가에 대한 기록치고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의 내용이 많이 할애된 까닭은 발람의 꾀

로 인한 저주가 다시는 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발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였습니다. 비록 발락이 엄청 화를 내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는 심한 욕설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락과 헤어진 이후에 곧장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부족 다섯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묘책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묘책에 모압왕도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발락의 계책대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고 음행을 저질렀으며 바알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계책으로 인해 일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야만 했고 자칫 잘못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할 뻔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미디안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는 미디안을 쳐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멸망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 31: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민 31: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겔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미디안 다섯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발람이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발락과의 헤어진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디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들은 그대로 전하였던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5 장 =====

[민 25:1]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 25: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민 25: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 25: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민수기 25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타락 사건을 기록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실패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쳤습니다(계 2:14 참조). 그 방법은 바로 미혹과 타협을 통한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시딤은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의 마지막 진영이었으며,

그들이 여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것은 가장 거룩한 전진의 순간에 가장 극심한 영적 나태함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모압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원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와이짜메드 이스라엘 레바알 프올〉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멍에를 메고 짝을 이루었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과 영적인 결혼을 했다는 언약 파기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바알브올〈바알 프올〉은 '브올의 주인 바알'이라는 뜻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성적인 의식이 결합된 우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음란과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타협을 주도한 지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죄의 전염을 막고 백성들에게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 25:5]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민 25: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민 25: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 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막 문에 모여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지도급 인사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를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레에네이>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극도의 불경하고 오만한 행

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어 '목전<레에네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지도력을 조롱하고 거룩함을 모독하는 선동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악의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장막에 들어가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임으로써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즉시 염병이 그쳤습니다. 이만 사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죽음은 죄악의 전염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와 단호한 처결만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의로운 열심과 용기를 가지고 죄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단호하

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 25: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5: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
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
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 25: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민 25:13]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
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
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극찬하시며 언약적인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
투하여<킨아 엷 킨아티>" 행동했다고 말씀하셨
는데, 원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킨아 엷 킨아
티>는 '나의 질투심을 나를 대신하여 열렬하게
드러냈다'는 뜻으로, 이는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
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왔음
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

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자신을 향한 질투심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비느하스가 이 신적인 질투심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멸의 노를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베리티 샬롬>을 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어 '평화의 언약<베리티 샬롬>은 '관계의 온전한 회복과 안전'을 뜻하며, 이는 비느하스 가문에게 "[민 25:13]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베리트 케후나트 올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죄를 속하는 제의(祭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였음이니라<카파르>"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원어 '속하였음이니라<카파르>는 '덮다', '화해시키다'는 뜻으로, 그의 열정적인 공의의 행동이 대속의 효과를 발휘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느하스가 받은 평화의 언약은 "[말 2:5]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단호하고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열매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 25: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민 25: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민 25: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5:17]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민 25:18] 이는 그들이 궤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단락은 죄를 짓고 심판받은 두 주동자의 신분

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졌는지 밝히고, 미디안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는 '시므리인의 족장'이었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미디안 족속 두령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디안 지도층 간의 고의적인 동맹적 행위였음을 드러내는데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인들을 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민 25:18]그들이 궤홀로 너희를 대적하되"였습니다. 여기서 궤홀<네켈>은 '속임수', '기만적인 계략'을 뜻하며, 이는 미디안과 모압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저주가 아닌 미혹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멸을 노렸던 전쟁보다 더 교활한 공격을 감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심판 명령은 단순한 민족적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파괴하려 했던 사단의 영적인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눈에 보이는 무력보다 세속적인 타협과 음란

한 문화라는 교활한 속임수를 통해 우리를 파멸
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순결과 거룩
함을 지키기 위한 전투적인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6 장 =====

[민 26:1] 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6: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니

[민 26: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민 26: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민수기 26장은 바알브올 사건으로 인한 염병 심판 직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와 심판의 역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언약을 재확인하고 새 시대의 질서를 확립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수가 시내 광야에서 행군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면(민 1장), 이 두 번째 계수는 모압 평

지, 즉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새로운 세대를 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십 세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만한 모든 자"라는 군사적 기준에 따라 계수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영적 전투와 기업의 획득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계수는 심판을 경험하고 정화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인구 조사는 군사력 확인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계수는 "[사 43: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징계 후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 26:5]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민 26:6]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민 26:7]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요

[민 26:8]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민 26:9]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민 26:10]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이백오십 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민 26:11]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 26:12]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민 26:13]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민 26:14]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민 26:15]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가족과

[민 26:16]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민 26:17]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민 26:18]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더라

[민 26:19]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민 26:20]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민 26:21]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민 26:22]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육천오백 명이었더라

[민 26:23] 잇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민 26:24] 야삽에게서 난 야삽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라

[민 26:25] 이는 잇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사천삼백 명이었더라

[민 26:26] 스불론 자손들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라

[민 26:27]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오백 명이었더라

[민 26:28]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민 26:29]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민 26:30]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민 26:31]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겔에게서 난 세겔 가족과

[민 26:32]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민 26:33]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민 26:34]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이천칠백 명이었더라

[민 26:35]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민 26:36]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민 26:37]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이천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민 26:38] 베냐민 자손들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민 26:39]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민 26:40] 벨라의 아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민 26:41]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

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육백 명이
있더라

[민 26:42]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
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민 26:43]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
가 육만 사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26:44]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
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민 26:45]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
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민 26:46]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민 26:47]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
을 입은 자가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더라

[민 26:48]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아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민 26:49]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
서 난 실렘 가족이라

[민 26:50]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
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

더라

[민 26:51]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십만 일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의 이 마지막 단락은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을 확정하고, 레위 지파의 계수를 별도로 기록하며, 광야 1세대 심판의 완벽한 성취를 선언하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공의와 주권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최종적으로 재정비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민 26:53]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공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민 26:54]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라는 인구 비례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 26:55]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야 한다는 제비뽑기의 원칙도 세우셨는데,

이는 인간적인 계산(인구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제비뽑기)가 조화를 이루어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땅 분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따라 이루어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수는 "[민 26:57]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의 종족대로 따로 기록되었고, 그 수는 "[민 26:62]일개월 이상으로 이만 삼천 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민 26:62]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음이었더라"는 설명처럼 군사적인 계수와 땅의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계보를 다시 언급하며 레위 지파의 영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특히 "[민 26:61]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는 언급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에게

는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새로운 세대의 경외하는 마음을 촉구했습니다.

이 인구 조사의 가장 엄중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광야 1세대 심판의 완벽한 성취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민 26:64]이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 [민 26: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40년의 시간을 거쳐 티끌 하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기념비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광야에서 죽으리라)

도 지키시지만, 구원의 약속(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업에 들어간다)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의 흐름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 26: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6:53]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민 26: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민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 26:56]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민수기 26장의 이 단락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로운 분배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언약의 땅 기업이 인간적인 자의(自意)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라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은 공의와 균형을 위한 인구 비례였습니다. “[민 26:54]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라는 말씀은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와 정의의 원칙을 존중하시며, 기업을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제비뽑기였습니다. “[민 26:55]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는 명령은, 기업의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 정해지더라도

기업의 구체적인 위치는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확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막고, 모든 분배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공동체 전체가 고백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 인구 비례와 제비뽑기의 조화는 신앙생활에 있어 인간의 성실한 준비(계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제비뽑기)이 동시에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26:57]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며

[민 26:58]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
족이라 고탓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민 26:59]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
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민 26: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민 26:61]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민 26:62] 레위인의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
음이었더라

열두 지파를 따라 계수된 결과, 총계는 육십만
일천 칠백 삼십 명으로, 40년 전 첫 번째 계수의
총계(603,550명)보다 약간 줄어들었으나 언약
적 규모는 놀랍도록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인간의 불순종이 심판을 가져왔음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언약은 불변하며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중에서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이 제외되었고, 바알브올의 죄로 심판받았던 시므온 지파의 인원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심판은 후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나, 유다, 잇사갈, 요셉의 지파 등 하나님께 충성했던 지파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영적인 보상과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죄의 결과는 공동체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영적인 축복과 번성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 역시 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수되었는데, 그 총계는 2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분깃을 얻지 못함이었더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땅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는 영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 26: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대 [민 26: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
을 얻게 하되 [민 26: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
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명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민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
상 지파의 이름대로 얻게 할지니라 [민 26:56]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수가 많은지 적
든지 그들의 기업을 따라서 나눌 것이니라

이 단락은 두 번째 계수의 핵심 목적인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기업의 크기는 "명수대로" 즉, 지파
의 규모에 비례하여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
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적인 위치는 "제비
뽑아" 나누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
(계수)으로 분량은 정하지만, 기업의 위치(실제
적인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
려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최종적인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잠 16:33]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땅 분배의 원칙은 인간의 책임(계수)과 하나님의 주권(제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언약 공동체의 경제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의 크기(계수)는 우리의 헌신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사역의 궁극적인 성공과 축복(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 26: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민 26: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민 26: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

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의 대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가장 엄중하고도 명백한 증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40년 광야 사망)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는 데 있었습니다. "[민 26:64]이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공의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두 번의 계수에 모두 포함된 인물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세대에 속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히 3:19]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며, 불순종으로 인한 믿음 없는 삶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하게 한다는 영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공로나 혈통이 아닌, 현재의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업(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임을 깨닫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행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7 장 =====

[민 27:1]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민 27:2]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민 27: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민 27: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민 27: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민수기 27장의 첫 부분은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의 간청이라는 놀라운 호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었으나, 기존의 율법은 아들이 없는 가정의 딸들에게는 땅의 상속권을 인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딸들은 회막 문에서 모든 최고 지도자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라며 가문의 명예와 언약적 권리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간청은 단순히 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지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신앙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민 27:3]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라고 강조한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고의적이고 오만한 반역(고라의 죄)이 아닌, 일반적인 인간의 연약함(자기 죄)으로 광야에서 죽었음을 변호하여 상속권이 박탈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아들이 없는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법의 형식이 아닌 언약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민 27: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7:7]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

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민 27: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민 27:9]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민 27:10]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민 27:11]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슬로브핫 딸들의 호소에 대해 "[민 27:7]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전폭적으로 인정하셨고,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판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법이 인간의 형식적인 관습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축복과 가문의 존속이라는 더 높은

공의의 원칙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여성 상속권을 넘어, 하나님의 공호와 세밀한 관심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약 1:27]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는 말씀처럼, 약자와 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구약 시대에 이미 확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이나 불합리한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 27: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민 27:13]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민 27:14]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

새로운 기업의 법도를 세운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죽을 것이라는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세의 위대한 사역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므리바 물 사건에서의 불순종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로 키다쉬템 오티>은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모세가 그의 인간적인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장벽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땅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최고의 슬픔을 겪었는데, 이 비극적인 결말은 율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세(율법)는 인간의 죄 때문에 약속의 기업(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

으며, 오직 여호수아(예수)만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모세의 죽음을 율법 시대의 종말과 은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순종과 믿음 없이는 완벽한 구원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 27: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민 27: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민 27: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 27: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 27: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민 27: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민 27: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민 27: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이 아닌 백성의 미래를 먼저 염려하는 "[민 27:16] 여호와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니시여"라는 경건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이 그 속에 있는 자<루아흐 보>"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위의 이양 절차는 공적이고 질서 정연했습

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임했는데, 이 안수는 영적 권위의 공식적인 전수를 의미했으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는 시각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이는 새로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제사장적인 중보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통치해야 한다는 영적인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모세의 이 안수와 위임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후계자들을 세울 때 행했던 안수와 파송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공동체의 지도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8 장 =====

[민 2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8장은 광야를 마치는 새로운 세대에게 정한 절기별 제사 규례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이 단락은 그중에서도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常燔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여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간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예배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됨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민 28:8]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민 28:6]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의 지속성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소제와 전제가 반드시 첨가되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전제는 독주(포도주)를 부어 드려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처럼 매일 두 번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로 이루

어제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민 28:6]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라는 말씀은 이 상번제의 영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내용이 인간의 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상번제는 “[히 10:10]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처럼, 매일 반복되던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롬 12:1]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상번제의 정신)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헌신(소제와 전제)을 더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우는 것이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이 상번제의 규정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
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
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
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지 일곱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
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
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
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상수 번제의 규정에 이어, 안식일과 월삭(매 월 시작)에는 추가적인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상수 번제 외에 수양 두 마리를 추가로 드려야 했는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영적인 심이 더욱 풍성한 헌신과 예배를 통해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수양 일곱이라는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시간의 시작(월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월삭(새 달)은 나팔을 불어 알리는 중요한 절기였으며, 시간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절기 제사는 "[골 2:16]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이나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상의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제물)을 투자하여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 28:16]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 28:20]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민 28: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8장의 마지막은 유월절(정월 십사 일)과 칠칠절(오순절)에 드려야 할 절기 제사를 규정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칠칠절은

곡식 수확의 감사와 더불어 시내 산 언약(율법)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처럼 구속과 공급이라는 하나님 은혜의 두 기둥을 대규모의 풍성한 제물을 통해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 응답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예표합니다. 이 절기들에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전하고 완벽한 단번의 제사였기에 우리가 다시는 구속을 위해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복음의 완전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유월절)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말씀과 성령의 공급(칠칠절)에 대한 넘치는 기쁨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기제사의 종류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레위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번제의 형태였습니다.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

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5절). 고운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다(7절).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드려진 소제와 전제는 화제와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안식일에 대한 제사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기름섞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

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력의 시작은 1월이고 민간력의 시작은 7월로 다를 뿐입니다.

이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려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 힌 전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양(lamb)의 번제

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힌의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월삭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민 28:16] 정월 십사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매일드려지는 제사, 안식일의 제사, 월삭의 제사 외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를 드리도

록 명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순절(맥추절, 칠칠절)과 초막절의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빍월에 이뤄졌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출 12장 참조).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장자가 구원받았던 그 날 저녁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출애굽하여 광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출 12: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 12: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출 12: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출 12:34] 백성이 밧고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곧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식때 드리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 28:20]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민 28: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
이며”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
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
졌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
절에 해당됩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날과 마
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
아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
습니다. 이는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
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
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
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
물은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

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

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를 새롭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 번제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은 번제물의 등급에 따라 비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절기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

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설명하였습니다.

번제물	소 제	전 제
수송아지	고운 가루 3/10 에바	포도주 1/2 힌
수 양	고운 가루 2/10 에바	포도주 1/3 힌
어 린 양	고운 가루 1/10 에바	포도주 1/4 힌

나팔절(7월 1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모두 세가지 것이 중복되었습니다. 매일 드려졌던 상번제의 희생제물과 월삭의 희생제물과 나팔절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수송아지 3마리(나팔절 1,

월삭 2), 수양 2마리(나팔절 1, 월삭 1), 어린양 16 마리(나팔절 7, 월삭 7, 상번제2), 속죄제 수염소 2 마리(나팔절1, 월삭1)입니다.

나팔절 때에도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신년제사에도 속죄제 의식을 집행했던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다른 제사 때보다 훨씬 중요한 성회였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된 자신을 거칠게 다루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애통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

죄제물이 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 일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물이 있었고, 대제 사장과 백성을 위해 드려졌던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있었으며,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번제물과 함께 드려진 수염소 속죄제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민 29:1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내용은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때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첫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러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러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러졌습니다.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아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8일째 성회를 마치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는 매우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러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러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러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러졌습니다.

초막절 때 드러졌던 제사의 형식은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러졌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사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뀐 시대라고 해서 제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상번제도 오늘날에 지켜져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지켜졌던 제사도 오늘날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매달 첫날에 드려졌던 월삭도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처럼 여러 예배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

니다.

민수기 29 장 =====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 매우 중요한 달인 칠월의 시작, 즉 나팔절<욥 테루아>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원어 '나팔 부는 날'<욥 테

루아>은 '소리 높여 외치는 날', 또는 '큰 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뒤이어 오는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심판과 은혜의 절기를 준비하라는 영적인 각성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백성들이 일 년의 시작을 노동이 아닌 거룩한 성회로 시작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매일의 상수 번제, 월삭의 번제 외에도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어린 수양 일곱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제물을 "외에" 드려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임재가 가까웠을 때 더욱 풍성한 헌신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이 나팔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52]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형하리니"라는 말씀처럼,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재림을 항

상 기쁨과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며,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나팔절 이후 열흘째 되는 날은 일 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민 29:7]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티안누 나프쉐킴>"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원어 '괴롭게

하며<티안누 나프쉐켄>는 '너희의 영혼을 굴복시키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금식과 철저한 회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대속 제사를 통해 속량(贖良)하는 것이었으며, 백성들은 내부적인 겸손과 외적인 금식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비록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이 주되게 규정되었으나, 민수기 29장에서는 속죄 일에도 추가적인 번제를 드리도록 명합니다. 이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국가적인 감사와 헌신이 개인의 회개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희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 10:14]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영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 29:1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민 29:1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셋과 수양 둘과 일 년 된 수양 열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민 29:14]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5] 어린 양 열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6]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17]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둘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민 29:18]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19]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하나와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
며

[민 29:2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2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2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
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민 29:2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2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
며

[민 29:27]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28]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29]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민 29:30]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3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3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넷을 드릴 것이며

[민 29:3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3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속죄일 닷새 후부터는 칠 일 동안 초막절<하그 하숙콧>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어 '초막절'<하그 하숙콧>은 '장막의 절기',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셨던 은혜와 한 해의 최종적인 수확을 동시에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세대가 현재의 풍요 속에서도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번제물, 특히 수
송아지의 수가 날마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첫
째 날 열세 마리에서 시작하여, 둘째 날 열두 마
리, 셋째 날 열한 마리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
어 일곱째 날에는 일곱 마리가 됩니다. 이 감소
하는 제사 규정은 구속사적 해석에서 여러 의미
를 갖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것이 이방 민족(70
민족)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해
중보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또는 점차
적으로 감소하는 제사를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
가는 구속사를 상징하며,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수록 짐승 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임을 예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1:14]말씀이 육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처럼,
초막절의 의미인 '우리과 함께 거하심(성육신)
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
그네로 살아가며 초막에 거하던 조상들처럼 하
나님의 공급에 감사하고, 마지막 완성의 날(재

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민 29: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36]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민 29:37]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민 29:38]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초막절의 일곱 날이 지난 후에는 "팔 일<쉐미니 아째레트>"이라 불리는 마지막 성회가 있었습니다. 원어 '팔 일'<쉐미니 아째레트>은 '여덟째 날의 집회', '최종적인 성회'라는 뜻을 가지며, 이 날

은 절기의 최종적인 완성과 총 결산을 의미했습니다. 이 날에는 다른 날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제물(수송아지 하나)을 드렸는데, 이는 칠 일 동안의 풍성한 제사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로 돌아감을 알리는 동시에, 절기 자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로운 예배로 모든 것을 마무리함을 뜻합니다.

민수기 29장은 "[민 29:40]이는 너희가 서원과 낙헌제 외에 정한 절기를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니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세대가 자발적인 서원이나 헌신(낙헌제)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 규례를 단 하나의 예외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기적인 제사 규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벽하고 질서정연하며 포괄적이라는 것을 예표하며,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나 규정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하신 모든 질서(말씀, 기도, 예배, 헌신)를 일관성 있게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0 장 =====

[민 30: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니라

[민 30: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맹세에 관한 규정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세대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원<네 데르>은 자발적인 헌신을 뜻하며, 맹세<쉬부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을 의미합니다. 특히 "[민 30:2]맹세하고 결심하였으면<아사르 잇사르>"는 원어 '결심하였으면'<아사르 잇사르>가 '결박하는 맹세', '단단히 묶는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묶는 엄중한 구속력을 나타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민 30:2]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적인 효력을 가졌으며, 이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언약 백성의 의무와 직결되었습니다. 말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5:4]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씀처럼, 서원을 파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영적인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솔한 말로 쉽게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깨닫고 정직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30: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민 30: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

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 30:5] 그러나 그 아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의 규정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특수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혼인 딸이 서원했을 경우, 그 효력의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침묵하면 서원은 유효하게 되지만, 듣는 날에 불허하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개인의 영적인 헌신(서원)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가장) 아래에서 서원의 이행 가능성을 조절하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이 가장(아버지)의 경제적, 법적 책임 아래에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딸의 서원이 가문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가족의 의무와 충돌할 경우, 가장의 권위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영적 열정이 공동체의 질

서와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고전 14:34]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율법에 이른 것같이 복종할 것이요”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영적인 활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열심이 교회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지 살피고, 합당한 권위를 통해 서원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행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 30: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민 30:7]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 30: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민 30: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

룻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민 30:10]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
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
다 하자

[민 30:1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
라

결혼한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자
가 결혼 전에 한 서원이든, 결혼 후에 "[민 30:6]
경솔히 그 입술로 발하였으면" 남편이 듣는 날에
반대하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듣고도
침묵하면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
명한 뜻은 결혼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언약적 질서이며, 아내의 서원으로 인해
남편과 가정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어려움을 겪
지 않도록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시는 데 있었
습니다.

이 규정은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남편

에게 서원의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만약 남편이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서원을 무효화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부나 이혼 당한 여성의 서원이나 맹세는 "[민 30:10]모두 그에게 유효하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질 가정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여성의 서원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성도)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엡 5:29]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하시듯이, 우리의 서원과 헌신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 내에서 남편이 아내의 영적 헌신을 가장 잘 돕고 격려해야 하며,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 30:1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

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민 30:1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민 30:14] 그 남편이 일항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민 30:1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민 30: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0장은 남편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즉시 무효화하지 않고 "[민 30:15]얼마를 지낸 후에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당할 것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서원에 대한 취소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유부단함은 결국 그 죄의 책임

을 남편이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리더십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강조합니다. 원어 '죄를 당할 것이니라' <나사 아온>는 '죄를 지고 대가를 치르다'는 뜻을 가지며, 이는 말의 무게와 영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 30:16]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과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가정 공동체에 미치는 영적인 중요성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의 영적인 헌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가치는 사회적, 성별적 지위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책임과 질서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랑과 지혜로 사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원과 헌신을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중하게 결단해야 하며, 공동체의

지도자들(가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말의 무게와 영적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1 장 =====

[민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1:2]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값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민 31:3]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
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와 원수를 미디
안에게 값되

[민 31:4]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
에서 일천 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민 31:5] 매 지파에서 일천 인씩 이스라엘 천만
인 중에서 일만 이천 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
라

[민 31:6] 모세가 매 지파에 일천 인씩 싸움에 보
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
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
움에 보내매

[민 31: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민 31: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겔과 수르

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성전(聖戰)인 미디안 정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복수가 아니라 "[민 31:3]여호와와의 보복"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발람의 궤홀(속임수)을 통해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파괴하려 했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행위였습니다. 원어 '보복'<나캄>은 '징벌하다', '응징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악에 대한 신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일천 명씩 총 일만 이천 명이라는 제한된 정예 병력을 보냈는데, 이는 승리의 주체가 병력의 수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발람이 칼날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탐욕 때문에 그 백성을 미혹했던 죄악의 주동자가

마침내 자신의 죄의 값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미디안 정벌은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취해야 할 단호하고 타협 없는 자세를 가르치는 영적인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적인 동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싸워야 하며, 영적인 타협을 조장하는 모든 요소를 단호하게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민 31: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민 31:10]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민 31:11]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민 31:12]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민수기 31장의 이 단락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

나님의 징계적 심판을 이스라엘이 수행한 결과와 그들이 취득한 전리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미디안 족속에 대해 완전한 멸절 심판을 집행하시고,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확고히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욕심이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민 25장]브올 사건"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를 대행한 징계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민 31:9]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민 31:10]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미디안 족속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탈취했습니다.

원어 '탈취하고' <바자즈>는 '약탈하다', '노략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 전쟁은 전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

음을 강조합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의 악한 영향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민 31:12]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은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 31:9]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왔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민 25장 참고)에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곧바로 “[민 31:15-18]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고 질책합니다. 이는 미디안 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근본적인 죄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심판은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언약 공동체의 영적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

질적인 전리품(가축과 재물)뿐만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여자와 아이들까지 남겨 두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죄의 근원(미디안 여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세속적인 이득(전리품)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 그 남겨진 죄의 잔재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와 분리를 통해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31: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민 31:14]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민 31:15]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민 31:16]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브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와의 회중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

느니라

[민 31:17]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
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
고

[민 31:18]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
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
이니라

전쟁의 승리 후, 모세는 용사들을 영접하는 자리
에서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분노의 이
유는 "[민 31:15]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발
람의 꾀를 좇아 브올 사건의 근원이 되었던 미디
안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삼아 살려두는 인간적
인 자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전쟁이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영적인 미혹의 도구가 되었던 여자
들을 살려둔 것은 거룩함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
위였습니다.

모세는 "[민 31:16]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여

호와를 거역하게 하여” 염병을 초래했음을 상기시키며, 성전(聖戰)은 감정적인 자비를 허용하지 않으며 죄악의 전염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의 씨앗이 되어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갈 5:9]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는 신약의 경고처럼, 죄의 전염성은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미혹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요소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작은 죄와의 타협조차도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31:19] 너희는 칠 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삼일과 제칠일에 몸을 깨끗케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케 할 것이며

[민 31:20]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케 할지니라

민수기 31장의 이 단락은 미디안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과 그들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전쟁을 통해 획득한 물질적 승리가 영적인 부정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물리적인 접촉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민 31:19]너희는 칠 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 밖은 부정한 자가 머무는 장소였으며, 칠 일이라는 기간은 부정함이 끝나는 완전한 정결의 기간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직접적인 살상)을 했거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취한 행위와 죽음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에 그대로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결 의식은 시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不淨)을

씻는 "[민 19장]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이용한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하여 제삼일과 제칠일에 몸을 깨끗케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지 중이든 고의적이든 죄와 죽음의 영역에 발을 디딘 자는 반드시 대속적 의식을 통해 정결함을 회복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타국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동일한 정결 의식을 거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민 31:20]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케 할지니라"는 명령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역시 죄와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정화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미디안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온 모든 물건들은 물리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염의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영역(전쟁)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

을 가르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이 정결 의식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접촉이나 세속적인 성공 속에서 영적인 부정함이 묻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하며, 우리의 소유(전리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 31: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민 31:22]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민 31:23]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케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민 31:24] 너희는 제칠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케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모든 전쟁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결 의식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전리품과 군인들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불<에쉬>에 견딜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했고, 불에 견디지 못할 물건은 정결케 하는 물로 씻게 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며, 물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원어 '정결케 하는 물'<메 하타트>은 '죄(부정함)를 위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죄악에 오염된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과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만 거룩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과정을 그리스도를 통한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경험은 영적인 부정함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물)과 성령의 뜨거운 시험(불)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31: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1:26]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을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민 31:27]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민 31:28]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오백분지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민 31:29]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와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민 31:30]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오십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민 31: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민 31:32]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이요

[민 31:33] 소가 칠만 이천이요

[민 31:34] 나귀가 육만 일천이요

[민 31:35]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이니

[민 31:36]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
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이라

[민 31:37] 여호와께 세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
요

[민 31:38] 소가 삼만 육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
와께 세로 드린 것이 칠십이 두요

[민 31:39] 나귀가 삼만 오백이라 그 중에서 여
호와께 세로 드린 것이 육십일이요

[민 31:40] 사람이 일만 육천이라 그 중에서 여
호와께 세로 드린 자가 삼십이 명이니

[민 31:41] 여호와께 거제의 세로 드린 것을 모
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민 31:42]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
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민 31:43] 곧 회중의 얻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
만 칠천오백이요

[민 31:44] 소가 삼만 육천이요

[민 31:45] 나귀가 삼만 오백이요

[민 31:46] 사람이 일만 육천이라

[민 31:47]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
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정결 의식이 끝난 후, 전리품을 분배하는 법이
주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원칙
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승리의 주
체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전리품의 소유권 또
한 하나님께 있음을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
과 진중에 남아 있던 온 회중에게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진중에 남아 있던 자들에게도 동등한 몫을 분배
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상호 의존성을 강
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배에서 하나님의 몫이 구별되었습니다. 군
인들이 얻은 몫에서는 오백분지 일을, 회중이 얻
은 몫에서는 오십분지 일을 취하여 제사장과 레
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분배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속죄)의 사역과 레위인의 헌신(봉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가르치며,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민 31:48]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민 31:49]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민 31:50] 우리 각 사람의 얻은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와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민 31:5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민 31:52]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일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니

[민 31:53]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민 31:54]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1장의 마지막은 가장 감동적인 봉헌으로 마무리됩니다. 군대의 장관들이 "우리 수하의 군인이 일인도 무고히 빠진 자가 없기로"라는 놀라운 승리를 보고하며, 생명에 대한 감사로 금 패물을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루어졌음을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금 패물은 세속적인 부와 우상숭배의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생명의 가치가 물질적인 소유보다 훨씬 귀함을 선언했습니다.

원어 '속죄하게 하소서' <카파르>는 '덮다', '화해시키다'는 뜻으로, 그들의 생명의 보존이 하나님

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속전을 드린 것입니다. 이 헌금은 "[시 116:12]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물질적인 헌신으로 응답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와 헌신의 기념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2 장 =====

[민 3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가 있었다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민 32: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민 32:3]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민 32:4]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민 32:5]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사명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의 야셀과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시혼과 옥의 영토였는데, 이 땅이 "[민 32:1]가축 기르기에 적당한지라"는 이유로 르우

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서편의 약속된 가나안 땅 대신 이 동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외면하고 물질적 안정과 풍요를 최우선으로 삼으려는 영적인 나태함을 보여줍니다. 원어 '가축' <미크네>는 '소유', '재산'을 뜻하며, 이들의 요청은 언약의 기업(가나안)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가축)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세속적인 가치관의 반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는 군사적,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곧 가나안 정복이라는 공동체의 사명에서 자신들만 이탈하겠다는 선언과 같았으며, 이는 공동체의 연합과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과 물질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앞에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요단 동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전투(요단 서편)를 외면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가장 위험한 유혹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 32: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민 32:7]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민 32:8]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민 32: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민 32:10]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민 32:11]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민 32:12]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민 32: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민 32:14]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
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민 32:15]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
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 매우 격렬하게 분노
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행위를 곧바로 40년 광야
방향을 초래했던 불신앙의 정탐꾼들(민 13장)의
죄와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공
동체의 사명을 위해 희생과 연합을 요구하시는
데, 이들의 요청은 형제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민 32:7]건너가기를 싫어하게 하여 실망케 하
려 하느냐”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
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민 32:9]여호와를
싫어하게 하여 그들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
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었느니라”는 패

역한 역사를 상기시키며, 원어 '패역'<사르>가 '돌아서다', '빚나가다'는 뜻을 가지듯, 이들의 행동이 공동체의 영적인 실패를 다시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경고한 핵심은 "[민 32:15]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부의 안일함과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운명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영적 연대 책임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모세의 준엄한 경고는 "[롬 14:7]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안일함이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명 수행에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않는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민 32: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가로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민 32:17]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
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들의 앞에 행하고

[민 32: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
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민 32:19]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
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
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민 32:2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
우되

[민 32:21]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
에서 쫓아내시고

[민 32:22]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
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
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민 32:23]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
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줄
알라

모세의 강력한 질책을 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요청이 공동체의 사명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건적인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가족과 가축을 남겨두고,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 강을 건너 "[민 32:17]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도 무장을 하고 그들의 앞에 행하고"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조건적인 승낙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관철하는 동시에, 개인의 물질적 필요 또한 공동체의 사명 수행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들의 약속을 수락하며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민 32:23]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경고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말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는 영적인 무게를 강조합니다. 원어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키 툴레헤드 에트킴 하타

트켄>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는 뜻으로, 숨겨진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기 전에 영적인 전투(사명)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 32:24]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민 32: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민 32:26]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 들에 두고

[민 32:27]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민수기 32장의 이 단락은 요단 동편 땅(길르앗과 야셀)을 기업으로 요청했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 대한 모세의 최종적인 명령과 이에 대

한 두 지파의 확고한 헌신과 순종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지파 간의 연합과 책임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윤리가 개인의 물질적 이익(요단 동편의 좋은 목초지)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그들이 약속했던 의무를 먼저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 32:24]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는 개인의 정착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민 32:24]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는 언약 이행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실함이 언약 백성의 기본 자세임을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의 명령에 "[민 32:25]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고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인 "[민 32:26]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요단 동편 땅에 남겨두고 정착 준비를 완료한 후, "[민 32:27]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라고 헌신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리페네 아도나이>는 인간의 지도자(모세)의 명령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전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지파의 맹세는 "[민 32:1-5]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구했던 초기 요청과는 달리, 언약 공동체의 연합과 희생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먼저 실천하겠다는 성숙한 신앙을 반영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했던 우리의 모든 약속(서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영적인 의

무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속적인 안락함(길르앗 성읍)을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책임(무장하고 건너가 싸우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인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헌신하고 연합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 32:28]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민 32:2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민 32:30]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민 32: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민 32:32]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

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민 32:33]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
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
혼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
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민 32:34]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민 32:35] 아다롯소반과 아셀과 욱브하와

[민 32:36] 벤니므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
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민 32:37]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민 32:38] 느보와 바알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
름을 고쳤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
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민 32: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
아내매

[민 32: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
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민 32:41]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

들을 취하고 하봇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민 32:42]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
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후계자 여호수아, 그
리고 족장들 앞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명확히 선
포하고 공식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처럼 중요
한 영적인 결정은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
서 이루어져야 법적, 영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질
서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르우벤, 갓, 므
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잠정적인 기업으
로 받았으며, 하봇야일과 같은 새로운 지명이 붙
여지며 정착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정착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적인 도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성막과 성전 중
심의 예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졌고, 이는 우
상숭배에 쉽게 노출되는 영적인 취약성을 낳았
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요단 동편의
정착을 세상적인 안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
재(요단 서편)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험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안정을 얻었다는 이유로 교회와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고립을 경계해야 하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연합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3 장 =====

[민 33:1]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민 33:2] 모세가 여호와와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민 33:3] 그들이 정월 십오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민 33:4]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민수기 33장은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간의 모든 여정(노정)을 모세가 직접 기록한 역사적인 진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기록되고 입증될 수 있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노정' <마세>는 '출발지', '여정', '단계'를 뜻하며, 모세는 이 42곳의 구체적인 정착지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처럼 노정을 기록하는 것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대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에서 유월절 다음날 이스라엘이 "큰 권능으로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 노정의 시작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이 개입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상세한 노정 기록은 "[시 78: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라는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인도되는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과거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 33: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진 쳤고

[민 33:6]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
쳤고

[민 33:7]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므딤 앞에 진 쳤고

[민 33:8]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
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삼 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 쳤고

[민 33:9]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
림에는 샘물 열두개와 종려 칠십 수가 있으므로 거
기 진 쳤고

[민 33:10]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 가에 진 쳤
고

[민 33:11] 홍해 가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에 진
쳤고

[민 33:12] 신 광야에서 발행하여

[민 33:13] 돕가에 진 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 쳤고

[민 33:14]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 쳤

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민 33:15]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 쳤고

[민 33:16]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핫다아와에 진 쳤고

[민 33:17] 기브롯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 쳤고

[민 33:18]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릿마에 진 쳤고

[민 33:19] 릿마에서 발행하여 림몬베레스에 진 쳤고

[민 33:20] 림몬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립나에 진 쳤고

[민 33:21] 립나에서 발행하여 릿사에 진 쳤고

[민 33:22] 릿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 쳤고

[민 33:23]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 산에 진 쳤고

[민 33:24] 세벨 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 쳤고

[민 33:25]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막헬롯에 진 쳤고

[민 33:26] 막헬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 쳤고

[민 33:27]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 쳤고

[민 33:28] 데라에서 발행하여 밋가에 진 쳤고

[민 33:29] 밋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 쳤고

[민 33:30]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 쳤고

[민 33:31]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아간에 진 쳤고

[민 33:32] 브네야아간에서 발행하여 홀하깃갓에 진 쳤고

[민 33:33] 홀하깃갓에서 발행하여 옷바다에 진 쳤고

[민 33:34] 옷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 쳤고

[민 33:35]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 쳤고

[민 33:36]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 쳤고

[민 33:37]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 쳤더라

[민 33:38]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년 오월 일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민 33: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일백이십삼 세이었던라

[민 33:40]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던라

[민 33:41] 그들이 호르 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
에 진 쳤고

[민 33:42]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부논에 진 쳤고

[민 33:43] 부논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 쳤고

[민 33:44]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예아
바림에 진 쳤고

[민 33:45]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 쳤고

[민 33:46]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디블라다
임에 진 쳤고

[민 33: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 쳤고

[민 33:48]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민 33:49] 요단 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벵여시못
에서부터 아벨시딤에 미쳤었던라

5절부터 49절까지는 애굽의 라암셋을 시작으로

모압 평지의 아벨시딤에 이르기까지 42곳의 구체적인 정착지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42곳의 여정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시간을 상징하며, 전적인 순종을 훈련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목록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있었던 곳(예: 엘림의 물샘)과 백성의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 심판이 임했던 곳(예: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롬 8:28]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고난의 역사까지도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정확한 경로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42곳의 정착지를 성도들의 영적인 순례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각 정착지가 상징하는 시험과 안식, 승리와 실패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영적인 삶의 모든 단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시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언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록된 고통과 방황의 장소들조차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속에서는 의미 없는 곳이 없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었음을 감사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 33:50]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3: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 33:52]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민 33:53]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민 33:54]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민 33:55]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 33:56]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3장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최종적인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훼파하며 산당을 헐어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영적인 평화와 구별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우상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미래의 언약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민 33:55]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찔레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민 33:56] 나는 그들을 너희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죄

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거룩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죄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명령은 "[고후 6:17]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분리와 단절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둔 우상(탐욕, 교만, 세상적인 습관)을 완전히 휘파하고 영적인 성결을 위해 타협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4 장 =====

[민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4: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민 34:3]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민 34:4]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민 34:5]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민 34:6]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민 34:7]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곳고

[민 34:8] 호르 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민 34:9]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

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민 34:10]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
어 스밤에 이르고

[민 34:11]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
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민 34:12]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
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
라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법적인 경계를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약속의 땅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남쪽, 서쪽, 북쪽, 동쪽으로 둘러싸인 명확한 지리적 실체임을 확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경계'<게불>은 '경계선', '영토의 한계'를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세상의 모든 국가와 구별되는 거룩한 언약의 공간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세밀하게 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사명의 범위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소유

권의 확실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땅의 경계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언약의 땅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타협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영적인 울타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경계를 통해 죄와 타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기업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34: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민 34:14]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민 34:15]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이 단락은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기업은 아홉 지파 반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요단 동편 정착이 본 기업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요단 서편의 땅이야말로 언약의 핵심이 실현될 장소임을 분명히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곧 언약의 축복과 직결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비록 비옥했으나 언약의 중심지인 성소와는 거리가 있었으므로, 영적인 중요성은 요단 서편 땅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분배는 "[고전 15:19]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요단 동편)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요단 서편)을 추구해야 할 성도들의 영적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

상적인 안락함을 위해 영적인 본거지(교회 공동체와 예배)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영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 34:16]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4:17]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민 34:18]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민 34:19]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민 34:20]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요

[민 34:2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민 34:22] 단 자손의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민 34:23]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민 34: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민 34:25] 스블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삭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민 34:26] 잇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앓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민 34:27]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민 34:28]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민 34:29]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민수기 34장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 분배를 담당할 공식적인 지도자들의 명단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공적인 정책이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배를 책임질 핵심 인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엘르아살(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권위를 상징했으며, 여호수아(지도자)는 군사적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실질적인 집행 책임자였습니다.

이 두 지도자 외에 각 지파의 한 족장씩을 택하여 분배 과정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는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분배자들의 조합은 교회의 사역이 영적인 지도(제사장)와 실제적인 행정(지도자),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족장)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가장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영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때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겸손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5 장 =====

[민 35: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민 35:3]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민 35: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민 35: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민 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민 35: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민 35: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축인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으나, "[민 35:2]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에서 총 사십팔 개의 성읍과 그 사면의 목초지<미그라쉬>(성읍 사면 사방 일천 규빗)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회막) 봉사에 전념하도록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 지경에 분산시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목초지'<미그라쉬>는 '성읍에 딸린 공터', '가축을 기르는 들'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레위인의 생계 유지 수단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그들

이 영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명기의 선언(신 18:2)처럼, 이 모든 영적인 사역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영적인 기업을 발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공동체에 퍼져나가도록 돕는 공동체의 연합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 35: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5: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여섯 곳은 도피성<아레

미클라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민 35:11]부지 중에<비슈가가>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어 '부지 중에'<비슈가가>는 '실수로', '부주의로'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던 피의 보수<고엘 핫담>로 인한 무분별한 복수를 막고 공의로운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적, 영적인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에 대한 징벌(피 흘림)과 생명에 대한 자비(도피)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공의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피의 보수자'<고엘 핫담>는 '피에 대한 보상자', '피를 요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이는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히 6:18]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피하여 들어간 우리는 힘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망 권세와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완벽하

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죄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 피의 보수자(사망)의 추격을 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도피성)께로 지체 없이 피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민 35: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민수기 35장의 이 단락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 중에서도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도피성(都避城) 제도의 구체적인 설치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피 흘림에 대한 공의로운 징벌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살인자에게 보복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언약 공동체 안에 공의와 자비의 조화를 이루시는 데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48개) 중에서 "[민 35:13]여섯" 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었는데, "[민 35:14]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개씩 설치하여, 어떤 지역에 살든지 살인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민 35:15]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는 데 있었습니다. 원어 '그릇 살인한 자' <비쉬가과>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뜻하며, 이는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고의적 살인)한 자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대 근동에서 흔했던 피의 복수(보복)로부터 무고한 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민 35:15]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라고 규정하여 특정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타국인(이방인)과 우거하는 자(거류민)까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배타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정의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미치는 은혜의 예표가 됩니다.

도피성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 6:18]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피하여 간 우리로 힘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도피성이 피 흘린 자의 생명을 지켜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 피 흘림을 당해야 할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민 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민 35: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민 35: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민 35: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민 35: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
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민 35: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 단락은 살인과 과실치사를 엄격하게 구별하
는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철 연장, 돌, 나무 연
장 등을 사용한 행위나 "[민 35:20]악의를 가지
고 밀치거나" "[민 35:21]원한으로 쳐 죽이면" 이
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어 도피성이 보호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악의)의 유무를 정밀하게 판결하도록 하
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신학
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 35:31]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나사 아온>"
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다'를 뜻하며,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라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속전(贖錢)으로 생명의 대가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독특한 규정은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 규례의 종결자로서, 이는 과거의 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종결하고 자유를 회복시키는 속죄의 절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속전이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돈이나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 35: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민 35:27]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

린 죄가 없나니

[민 35: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 35: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민 35: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민 35:31]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민 35: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민수기 35장의 이 단락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도피 기간의 종결 조건과 고의적 살인자에 대한 엄중한 공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피 흘림에 대한 공의의 원칙과 자비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이스라엘 땅

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제공하는 보호는 "[민 35:26]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 밖에서 피를 보수하는 자(복수자)에게 "[민 35:27]죽임을 당할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도피성 안에서의 안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호 기간의 궁극적인 종결 조건은 "[민 35:28]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 기간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때가 되면 부지중 살인자는 "[민 35:28]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직분이었기에,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구속과 함께 살인죄의 부지중성을 종결시키는 영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잃어버린 기업(하나님의 나라)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도피성 제도가 부지중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달리, "[민 35:30]고살자(故殺者), 곧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가장 엄중한 공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살자는 "[민 35:31]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라고 규정하여, 돈(속전)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살인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민 35:30]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라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징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정의와 공정성까지도 요구했습니다. "[민 35:32]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는 재차 강조된

규정은 대속적인 죽음(대제사장의 죽음) 외에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없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심판의 보복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우리의 본향(하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 35: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민 35: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
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장은 "[민 35:33]너희 거하는 땅을 더

럽히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죄악(특히 살인)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는(汚染) 가장 심각한 요소였으며, 그 피는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만 속함<카파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어 ‘속함’<카파르>은 ‘덮다’, ‘화해시키다’는 뜻으로, 이는 생명에는 생명으로만 대속이 가능하다는 공의의 최종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음을 보여주며, 땅의 정결은 곧 공동체의 영적인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벤전 1:16]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성전)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죄와 피 흘림(미움, 시기, 분노)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철저히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정결

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도 피 성

도피성이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같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회중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 35: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 35: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
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부족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보지 못한채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 35: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민 35: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죽인 사람의 경우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민 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민 35: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

라.”

도피성의 규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 왔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의 범한 일에 대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 반드시 두 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다음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만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면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을 스스로 벗어난 경우엔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법적 보호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도피성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모두 3개씩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손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만일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빨리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면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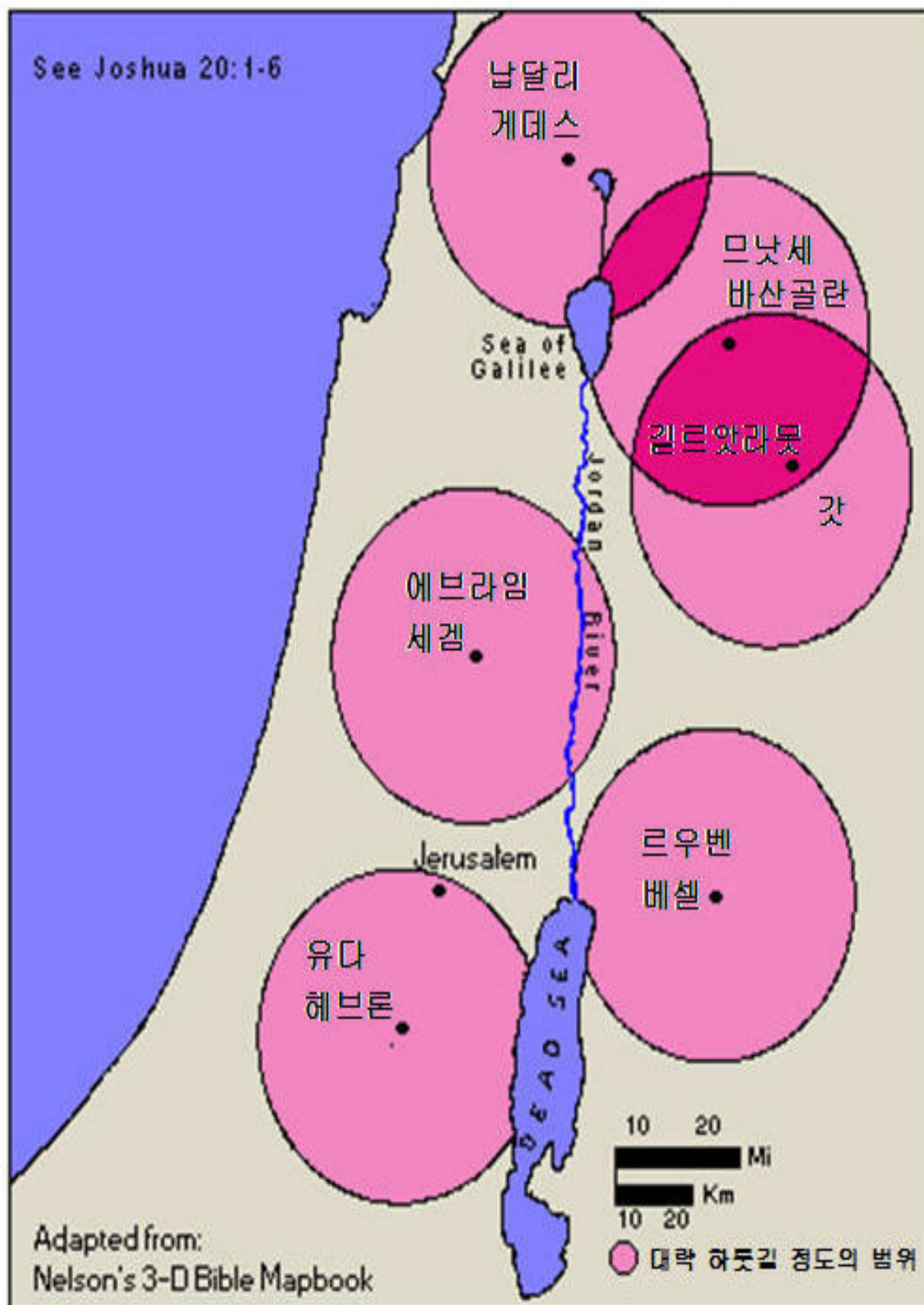
또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 35: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

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
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 피 성



민수기 36 장 =====

[민 36:1] 요셉 자손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민 36:2]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시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민수기 36장은 앞선 27장에서 다루었던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보완 규정을 다루면서 시작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민 36:2]슬로브핫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사온즉"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새로운 법적인 공의를 세우시는 동시에, 기존의 언약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하시는 데 있었

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상징이었으며, 각 지파의 기업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의 기업은 자동적으로 남편의 지파로 넘어가게 되며, 이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영구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지파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족장들의 간청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영구적인 질서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모색하려는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개인의 권리)을 누림에 있어, 그것이 교회 공동체(지파)의 영적인 질서와 언약의 보존에 해가 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 36:3]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

에서 감삭될 것이요

[민 36: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민수기 36장의 이 단락은 슬로브핫의 딸들(민 27장)의 토지 상속권에 대한 마지막 규정이자, 지파 간의 기업 경계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성의 상속권이라는 공의의 원칙을 인정한 동시에, 지파별로 고정된 기업의 경계라는 질서의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의 기업은 "[민 36:3]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이 지파의 이름을 따라 전수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따른 것입니다. 딸들이

결혼을 통해 다른 지파의 가족에 편입되면, 그들의 소유권도 자연스럽게 남편이 속한 지파로 넘어가게 되며, 이는 므낫세 지파의 총 기업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고 다른 지파의 기업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의 영구적 소유가 지파의 정체성과 군사적, 경제적 힘의 근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민 36:4]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이 규정은 기업의 이동이 희년을 통해 영구적으로 확정됨을 선언합니다. 희년은 토지가 원래의 소유 지파로 되돌아가는 해였으나, 슬로브핫의 딸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로 넘어간 기업이 영구히 그 지파의 소유로 귀속되는 예외적인 최종 확정 기능을 했습니다. 이는 토지 기업에 대한 권리가 여성이 아닌 남편의 지파를 통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규정은 지파별 기업이 인간의 어떤 사정에 의

해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언약적 축복의 경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로운 기업을 주시되, 그 기업이 질서와 연합 속에서 영구히 보존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구원, 은사)이 세상적인 이익이나 불순종적인 결혼(영적인 연합)으로 인해 타락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민 36:5]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민 36:6]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민 36:7]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민 36: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

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민 36:9]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
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므낫세 지파 족장들의 염려가 옳
다고 인정하시고, 슬로브핫 딸들에게 대한 최종
적이고 보완적인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
님의 분명한 뜻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민 36:6]
그들이 좋은 대로 시집가려니와"라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오직 그 조상 지파
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는 언약적인 제
한을 두심으로써 지파의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
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민 36:7]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임이니라"에 있
습니다. 기업의 보존은 곧 지파의 정체성과 언약
의 연속성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원어 '지킬 것
임이니라' <아하주>는 '붙잡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

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위에 놓여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 기업의 보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천국 기업의 확실성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벧전 1:4]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업은 세상의 어떤 변화나 타협으로도 침해받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유혹과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구원, 사명, 재능)이 다른 것에 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영적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 36:10]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민 36:11]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민 36:12]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 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민 36:13]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

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민수기 36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민 36:12]그 기업이 그 조상 지파에 남아 있으니라"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공의로운 판결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완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딸들의 순종적인 결혼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조화시킨 신앙적인 모범이었습니다.

이 장은 "[민 36:13]이는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 요단 가 여리고 맞은편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는 선언으로 민수기 전체를 끝맺습니다. 이 최종적인 선언은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모세의 개인적인 지시가 아니라 "[민 36:13]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임을 확증하여 책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의 모든 규례가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최종적인 헌법이었음을 보여주며, 새

로운 언약 공동체는 새로운 말씀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의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완벽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민수기

초판발행	2025. 12. 0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